

◆ 체레포베츠의 강철, 볼로그다의 정교  
- 산업과 영성의 교차로  
**볼로그다 州**

(Вологодская область)



현지훈

# 목 차

- 1. 개 관 .....
  - 1.1 위치 .....
    - 1.2 일반개황 .....
- 2. 자연환경 .....
  - 2.1 지리 .....
  - 2.2 기후 및 식생 .....
- 3. 주 문장/주 기 .....
  - 3.1 주 문장 .....
  - 3.2 주 기 .....
- Ⅱ. 상세개관 .....
- 1. 역 사 .....
  - 1.1 형성 .....
  - 1.2 발전 .....
- 2. 정 치 .....
  - 2.1 행정부 .....
  - 2.2 입법부 .....
  - 2.3 제6대 총선 .....
  - 2.4 대통령선거 .....
- 3. 경 제 .....
  - 3.1 경제개황 .....
  - 3.2 지역총생산(GRP) .....
  - 3.3 외국인투자 .....
  - 3.4 주요 산업 .....
  - 3.5 대외 무역 .....
- 4. 사 회 .....
  - 4.1 인구 및 민족구성 .....
  - 4.2 행정구성 .....
  - 4.3 교육 .....
  - 4.3.1 과외 활동 .....
  - 4.3.2 직업전문대학교와 대학교 .....
- 5. 문화 .....
  - 5.1 문화개괄 .....
  - 5.2 문화유적시설 .....
  - 5.2.1 건축물 .....
  - 5.2.2 그림 .....
  - 5.2.3 박물관 .....
  - 5.2.4 극장 .....
  - 5.3 수공예품 .....
  - 5.3.1 레이스 공예 .....
  - 5.3.2 나무 조각 .....
  - 5.4 볼로그다 출신 유명인 .....
- 6. 對韓관계 .....
  - 6.1 한국-볼로그다 경제협력 .....
- 7. 참고문헌 .....

## I. 종합개관

### 1. 개 관

#### 1.1 위 치



블로그다 주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이웃하고 있어 매우 유리한 지리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한, 블로그다 주는 아르한겔스크 주, 키로프 주, 코스트로마 주, 레닌그라드 주, 노브고로드 주, 트베리, 야로슬라블 주, 카렐리아 공화국과 경계를 이루며 러시아연방 유럽지역의 북서관구에 해당하는 곳으로 러시아 남동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블로그다(Вологда)는 블로그다 강에서 유래되었다. 도시는 블로그다강을 끼고 있으며 모스크바 북북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져 있다. 페테르부르크에서는 남동쪽 550km 떨어져 있다. 드비나강 수운의 종착점이며 남북과 동서로 달리는 철도의 교차지점으로 러시아 북부의 중요한 교통 연계지이자 환승지이다.

블로그다 주에는 블로그다 市와 체레포베츠 市 2개의 시(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자치군(Муниципальные районы) 3개, 도농통합시(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круга) 23개와 읍(городские поселения) 2개, 면(сельские поселения) 28개가 운영되고 있다. 블로그다는 행정중심지이며 체레포베츠는 산업중심 도시이다. 이외에도 벨리끼우스톡, 소콜 등 인구 5만명 내외의 소규모 거주지가 산재해있다.

## 1.2 일반개황

### 볼로그다 주 일반 개황

구분	주요내용
공식명칭	볼로그다 주(Вологодская область)
주도	볼로그다(Вологда)
면적	144,500km <sup>2</sup>
시간대	UTC+4(한국과는 -6시간)
성립일	1937년 9월 23일
인구 <sup>1)</sup>	112만 1343여명(2025년 기준)
민족구성 <sup>2)</sup>	러시아계 96.7% 우크라이나계 0.33%, 아르메니아계 0.16% 아제르바이잔계 0.13% 기타 2.7%
지역총생산(GRP)	1조 818억 2290만 루블(2023년 기준 북서부 연방관구 4위)
주요산업	제철업, 제조업, 기계 건축 산업, 화학산업
주요도시	볼로그다, 체레포베츠, 소콜, 벨리키우스투크
행정구성	시(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2, 자치군(Муниципальные районы) 3, 도농통합시(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круга) 23

### 볼로그다 주 지도



1) <https://35.rosstat.gov.ru/demografia>

2) <https://35.rosstat.gov.ru/folder/31322>

## 2. 자연환경

### 2.1 지 리

볼로그다 주의 영토는 대부분 해발 150~200m 에 위치한 구릉진 평원을 이루고 있으며, 고지대와 저지대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 영토의 약 72%가 숲으로 덮여 있으며, 11%는 소택지와 관목 숲을 이루고, 11%는 농경지이며, 농경지 중 800헥타르는 경작지, 467헥타르는 목초지이다. 볼로그다 주의 강들은 발틱 해, 카스피 해 및 백해로 흘러 들어가며, 비체그라구에 있는 아틀레카 산은 발트 해, 카스피 해, 백해, 즉 대서양과 북빙양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는 사실로 유명하다. 남북 간 총 길이는 385km 이며, 동서 간 총 길이는 650km이다.

또한, 볼로그다에는 쿠벤 호, 오네가 호, 벨로예 호, 보제 호를 비롯한 4,000여 개의 호수, 수호나, 비체그라, 유크 꼬브자 강 등 2,000여 개의 강과 저수지가 영토의 약 2.5%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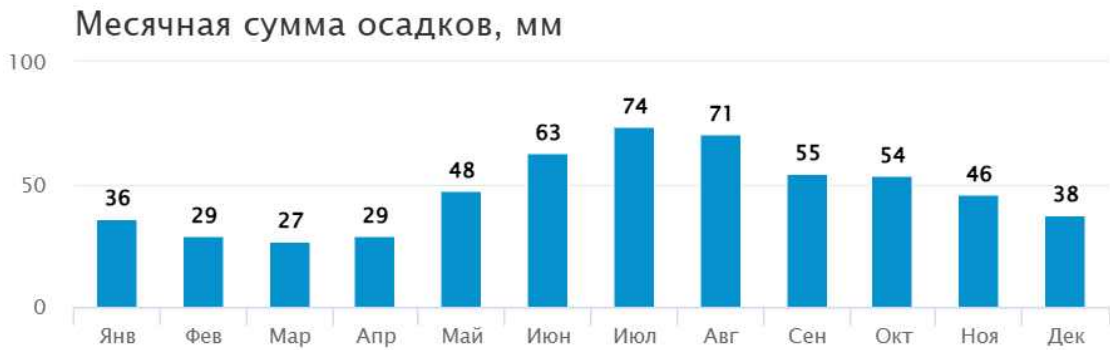
쿠벤호(Кубенское озеро) .



### 2.2 기후 및 식생

볼로그다 주는 대륙성 온난화 기후대에 위치하며, 겨울은 길고 추우며, 여름은 비교적 짧다. 1월 평균기온은 -14도 이며 7월 평균기온도 18도 밖에 되지 않을 만큼 기온이 높지 않다. 연평균 강수량은 대략 500mm 정도이다.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은 105일에서 115일 정도이다. 토양은 염분회색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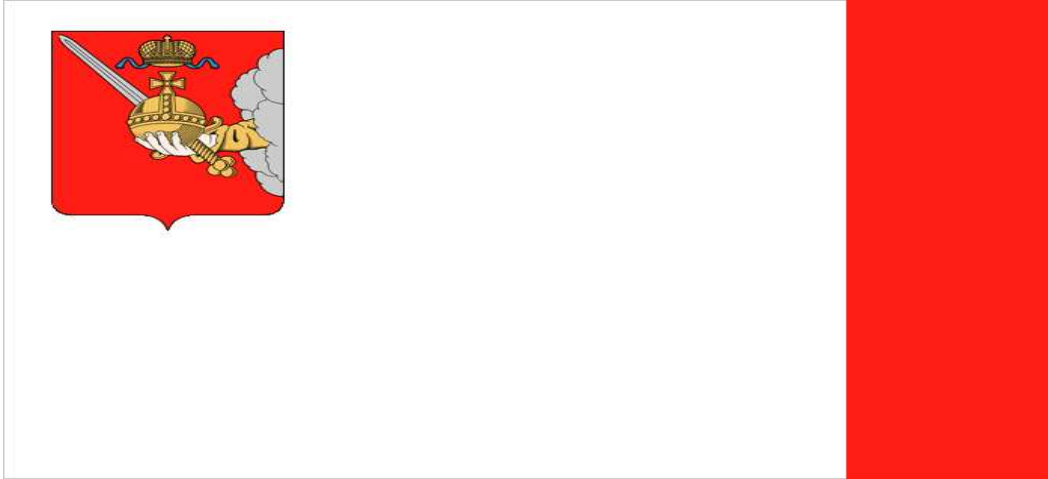
[1991-2022 블로그다주 기온 및 강수량]<sup>3)</sup>



3) 러시아 연방 기상청, <http://meteoinfo.ru> (검색일: 2025.03.16)

### 3. 주 문장/주 기<sup>4)</sup>

#### 3.1 주기



볼로그다 주 기는 흰색 바탕에 왼쪽에 볼로그다 주 문장이 있고 반대쪽에 붉은색 직사각형이 길게 자리잡고 있다.

#### 3.2 주 문장



볼로그다 주의 상징은 코트를 입은 손으로 칼과 성배 그리고 왕관을 들고 있는 사람이다. 위 사람들은 주기에 나타난 구름속에 황금 가운을 입고 있는 오른손의 주인공들이다. 붉은색 배경과는 대비되게 황금색 옷을 걸치고 있는 오른쪽 팔로 보석으로 장식된 금색 왕위를 상징하는 보주와 금빛과 은빛의 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쪽에는 러시아 제국의 왕관이 푸른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다.

검을 들고 있는 오른쪽 팔은 정의, 법원의 법, 조국의 수호를 상징한다. 금색 왕위를 상징하는 보주는 정권, 주 체제, 그리고 볼로그다 주의 정의를 상징한다. 가장 위쪽에 있는 러시아 제국의 왕관은 볼로그다 주의 역사적 주 영토의 상징의 힘과 위엄을 상징한다. 붉은 색 바탕은 힘, 강건, 용기를 상징하며 황금색은 전지전능함을 상징하고 은색은 순수를 상징한다.

4) 볼로그다 주 정부사이트 <http://www.vologda-oblast.ru/en/region/symbols>

## II. 상세개관

### 1. 역 사

#### 1.1 형성<sup>5)</sup>

역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볼로그다 주는 2만 5천 년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7미터 깊이에서 찾아낸 유물 등을 조사해본 결과 간빙기 시대에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원전 7~5세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고대 유럽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6~5세기에 슬라브 민족의 발전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피노-우그르(Finno-Ugric) 민족의 동화를 초래했다. 북쪽 지역의 러시아 식민화는 서쪽인 슬로베니아와 남쪽 크리비치 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볼로그다(Вологда), 벨로오제로(Белоозеро), 벨리키 우스툽(Великий Устюг) 도시가 생겼다.



언급된 도시 중 가장 오래된 도시인 벨로오제로(городе Белоозере)는 862년에 역사에 최초로 언급되었다. 벨로오제로는 로스토프 공국왕국으로부터 1238년에 독립해 150년간 공국으로 존재했다가 14세기에는 모스크바에 지배당했고 그 뒤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되었다.

벨리키 우스툽은 12세기 중반에 나타났다. 이 이름은 서쪽의 입이라는 의미에서 나왔다. 이 도시는 경제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이름에 위대하다는 의미의 벨리키라는 말이 붙었다.

중세초기에 동방정교가 수용됐고 12~13세기에 이 지역에는 동방정교 수도원 네트워크가 발전했다. 이 지역에서 이콘화가 발견되는데 12~13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동방정교가 지역적으로 수용됐음을 알 수 있는 증거이다.

모스크바 공국의 대공 바실리 2세는 15세기 중반 정치적 망명처로 볼로그다를 선택했고 볼로그다의 지지로 다시금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그 뒤 이반 4세는 북부의 도시들을 자신의 직할 영지로 편입시켰고 그 과정에서 볼로그다가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 되었다.

5) 관련사진들은 볼로그다주 정부사이트에서 발췌 [http://vologda-oblast.ru/o\\_regione/turizm/turisticheskie\\_obekty/](http://vologda-oblast.ru/o_regione/turizm/turisticheskie_obekty/)

## 1.2 발전

16~17세기 볼로그다는 영국, 네덜란드, 중국, 시베리아 상인들과의 교역에서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그 당시 주요 교역품은 아마, 타르, 식용기름, 물고기, 가죽 등이었다. 17~18세기에는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 북방지역에 관심을 가졌고 이 지역을 자주 방문했다. 예카체리나 2세의 통치 기간에는 볼로그다 주의 많은 도시가 건설되었는데 대표적 도시는 니콜스크, 카드니코프이다. 그 후 1789년 1월 25일 예카체리나 2세의 칙령에 따라 볼로그다 장관이 임명되었고 세 개의 지방인 아르한겔(Архангел), 볼로그다(Вологода), 벨리키 우스투크(Великоустюг)로 나뉘었으며 1796년 볼로그다가 지방의 중심지가 되었다.



1918년 볼로그다 주에는 벨스크(Вельск), 볼로그다(Вологода), 그랴조베츠(Грязовец), 카드니코프(Кадников)와 토트마(Тотьма) 5개 도시가 있었다. 1919년에는 볼로그다 지역에 카르고폴(Каргопольский уезд)과 오로네츠(Олонецкой губернии)가 포함되었다. 1921년에는 우스치 스이솔(Усть-Сысольский)과 대다수의 야렌스크(Яренского уезда) 도시들이 볼로그다 지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분리된 지역은 코삭스(Cossacks)소련 공화국의 새로운 두 행정 단위로 대략 반으로 나뉘었다

1872년 야로슬라블과 볼로그다 사이에 철도가 연결되었고 1898년에는 볼로그다로부터 아르한겔스크 철도가 연결되었다. 그 뒤 볼로그다로부터 페테르부르크와 바트카까지 철도가 연결되었다.

1905년 혁명으로 철도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고 1906년에는 극우주의자들의 약탈과 학생을 저격한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1925년 내전이 일어났을 때는 볼로그다는 피해를 입었고 내전 이후인 1926년까지 기아를 겪어야 했다. 백군에 대항해 대규모 전투로 도시 방어를 조직하였고 이후 군사명예의 도시의 칭호를 받았다. 1932년 레닌그라드 주의 창고다 위 지역이 작은 도시로 바뀌었고 스베르들롭스크 지역이 소콜 지역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곳의 중심지는 도시가 되었다. 1941년 레닌그라드 봉쇄를 돌파할 때까지 최전선 지역이었던 볼로그다는 피난 온 사람들의 피난처였다. 1942년부터 43년까지 30만명의 군단이 전멸되기도 했다. 3년간의 전쟁 기간동안 볼로그다는 3개의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센터가 위치해 있었고, 전쟁 기간 병원은 현재 전시물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다. 볼로그다 시골 지역은 볼로그다 도시의 주변 지역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체브사르(Чевсар), 그랴조베츠(город Грязовеци) 쿠베로 오제로 지역(Кубено-Озерский район)이 되었다.<sup>6)</sup>

1935년 북쪽에 12 곳의 지역이 생겼다. 2013년 현재 볼로그다 지역에는 바바예보(город Бабаево), 바부쉬키노(Село имени Бабушкина), 벨로제르스크(город Белозерск), 리핀보르(село Липин Бор), 우스투크(город Великий Устюг), 베르호바즈(село Верховажье),

6) 볼로그다 주 공식 홈페이지 <http://vologda-oblast.ru/ru/>(검색일:2019.05.03.)

보제가(пгт Вожега), 볼로그다(город Вологда)비테그라(город Вытегра), 그랴조베츠(город Грязовец, )카두이(пгт Кадуй), 키릴로프(город Кириллов), 키츠멘스키 고로독(село Кичменгский Городок), 슈이스크(село Шуйское), 니콜스크(город Никольск), 뉴크세니차(село Нюксеница), 소콜(город Сокол), 샴자(село Сямжа), 타르노스키 고로독(село Тарногский Городок), 토트마(город Тотьма), 우스치(село Устье), 우스추즈나(город Устюжна), 하롭스크(город Харовск), 차고다(пгт Чагода), 체레포베츠(город Череповец), 쉘크스나(пгт Шексна)가 있다.

1961년부터 1985년 사이에 아나톨리 드라이긴(Anatoly Drygin)은 소련 볼로그다 주 위원회 1서기이자 주임이었다. 이 기간동안 도시 재건을 위해 볼로그다에는 기계 공장, 양계장, 광학 기계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주요 건설 계획이 실행되었다. 도로가 건설되어 도시가 확장되었고 1976년 트랄레이부스 시스템이 개통되었다.

소련 해체 이후 1993년 지역 두마가 설립되어 1994년 첫 두마 선거가 실시되었다. 최초의 두마는 6석에 불과했으나 95년 30명의 대의원으로 확대되었다. 1991년~1996년은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포드고르노프가 첫 번째 주지사로 역임했고 1996년~2011년까지는 바체슬라프 애브게니비치 포즈갈료프 지사가 역임했으며 현 지사는 알렉 알렉산드로비치 쿽쉬니코프가 재임하고 있다.

## 2. 정치

수 세기 동안 정치적 안정은 볼로그다 지역의 목표였다. 1917년까지 볼로그다 주의 통치자는 러시아 황제가 임명했으나 그 뒤 1991년부터는 러시아 대통령이 임명을 하였다. 볼로그다 주 헌법에 따라 주의 행정 권력 기관의 조직법과 활동 원칙, 행정 집행 체계를 구성한다. 입법부는 볼로그다 주 헌장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 최고의 입법 기관은 볼로그다주 의회이지만 의회의 수장은 러시아 헌법에 따라 헌장 준수 보증인 역할을 하는 주지사의 보좌한다.

### 2.1 행정부

2001년 10월 3일에 볼로그다 주 헌법이 채택되었으며, 최고 행정직은 볼로그다 주지사로서, 러시아 연방 시민 중 볼로그다 주 거주자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주지사는 연방 기관 및 러시아 연방의 주 기간, 지방 자치 단체 및 대외경제 관계에서 볼로그다 주 정부를 대표 한다. 주 정부는 주지사가 주 의회에 주 예산, 주 계획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볼로그다 행정단위는 볼로그다와 체레포베츠를 포함한 4개의 도시인 그리고 26개의 군, 22개의 도시, 375개의 농촌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도시와 지구의 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역대 주지사 선출 방식을 설명하면 1996년까지는 대통령 임명을 통해 주지사가 선출됐다. 1991년 10월부터 1996년 5월까지 니콜라이 포드고르노프가 대통령 임명으로 주지사직을 맡았으며, 이후 1996년 6월부터 10월까지 바체슬라프 포즈갈료프가 임명되었다. 한편 1996년 이후 주지사는 민선으로 바뀌었다. 1996년 10월, 포즈갈료프가 첫 민선 주지사로 선출되었으며 1999년과 2003년에 연임했다. 2007년 6월 다시 주지사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2011년 12월 자진 사퇴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올레그 쿠브쉬니코프가 임시 주지사로 임명되었고, 2014년과 2019년 선거를 통해 정식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2023년 10월, 쿠브쉬니코프가 자진 사퇴하면서 게오르기 필리모노프가 임시 주지사로 임명되었으며, 2024년 9월 민선 주지사로 당선되어 2029년 9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다.<sup>7)</sup>

볼로그다 주 행정부(Администрация Губернатора Вологодской области)는 주지사 행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부지사 및 고위직, 주요 부서, 비서실, 부서 등으로 구성된다. 부지사 및 고위직(Заместители)에는 주지사 행정부 수석, 법무총국장 겸 주지사 행정부 제1부수석, 그리고 두 명의 행정부 부수석이 포함된다. 주요 부서(Управления)는 법무총국, 전략기획총국, 반부패 법 위반 예방총국, 특수문서통신 및 국가기밀보호총국, 특별프로그램총국, 감사총국, 공무원 및 인사정책국, 행정·재정·물류지원국, 문서관리국, 인사 및 포상국, 제1부지사(행정부 수석) 지원국, 주정부 의장 지원국, 주정부 위원 지원국, 시민 및 단체 청원처리국, 주지사 공보국, 주지사 의견 및 운영지원국, 참모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서실(Секретариат)은 볼로그다 주 주지사 비서실로 운영되며, 부서(Департаменты)로는 대외경제 및 국제·지역 간 협력부가 포함된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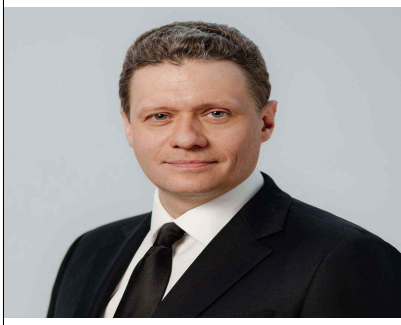
7) <http://council.gov.ru/services/reference/9376/> 검색일 (2025.03.22.)

8) [https://xn--80aaccf6bfbfxbbd3bgq4owb.xn--plai/vlast/administratsiya\\_gubernatora\\_vologodskoy\\_oblasti/](https://xn--80aaccf6bfbfxbbd3bgq4owb.xn--plai/vlast/administratsiya_gubernatora_vologodskoy_oblasti/) 검색일 (2025.03.22.)

2.1.2 역대 주지사

<b>바체슬라프 에브게니비치 포즈갈료프 (Вячеслав Евгеньевич Позгалёв)</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6년 12월 15일 북한 수도 평양에서 출생</li> <li>○ 1964년 고등학교 졸업</li> <li>○ 레닌그라드 전자공학 대학에 입학, 1970년 졸업</li> <li>○ 체레포베츠 제철소 엔지니어로 활동</li> <li>○ 1996~2011년 블로그다 주지사</li> </ul>
<b>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포드고르노프(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Подгорнов)</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5월 19일 블로그다 주 출생</li> <li>○ 1965년 벨리키 강 대학 졸업</li> <li>○ 선박회사에서 근무</li> <li>○ 1976~1979년 데마노브스카야 농장에서 근무</li> <li>○ 1979~1990년 오로라 농장에서 근무</li> <li>○ 1990~1993년까지 러시아 연방 보좌관으로 활동</li> <li>○ 1991년 12월 4일~1996년까지 블로그다 주지사</li> </ul>
<b>알렉 알렉산드로비치 쿵쉬니코프 (Олэг Алeксáндрoвич Кувшíнникoв)</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5년 블로그다 주 체레포베츠 출생</li> <li>○ 1985~1987년 군복무(소련 케메로보 지역)</li> <li>○ 1987년 체레포베츠 제철소 근무(수리공)</li> <li>○ 1991년 야로슬라브 기술학교卒</li> <li>○ 1994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무역 경제학과</li> <li>○ 1999년 모스크바대 상품 경영관리 학위 취득</li> <li>○ 국립경제협력 아카데미에서 MBA 취득</li> <li>○ 2002~2006년 체레포베츠 두마 보좌관</li> <li>○ 2003년 이래로 통합러시아당 당원으로 활동</li> <li>○ 2006년 체레포베츠 시 부시장</li> <li>○ 2007년 체레포베츠 시 시장</li> <li>○ 2011년 12월 14일 블로그다 주지사</li> <li>○ 2014년 5월 14일 블로그다 지사 재임</li> </ul>

현 주지사: 게오르기 필리모노프 (Филимонов Георгий Юрьевич)<sup>9)10)</sup>



- 1980년 톰스크 출생
- 2003년 RUDN 국제관계 전공
- 2005~2009년: 대통령 행정부 외교정책 부서 근무
- 2013년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 정치학 박사
- 2017년~2021년: 대통령 행정부 내부정책 부서 근무
- 2021~2023년: 모스크바주 부지사
- 2023년 10월: 볼로그다주 주지사 권한대행 임명
- 2024년 볼로그다주 주지사 선출

## 2.2 입법부<sup>11)</sup>

볼로그다 주의 행정 구조는 최고 행정 기관인 볼로그다 주 정부와 입법 기관인 볼로그다 주 의회로 구성된다. 볼로그다 주 의회는 임기 5년의 34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17석은 단일 선거구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 비례대표제로 배분된다. 현재 의회는 2021년 9월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9월까지이다. 역대 의회 의장으로는 1994~1995년 및 1996~2001년 흐리펠, 1995~1996년 수다코프, 2001~2011년 티히미로프, 2011~2016년 세브 초프, 2016~2024년 6월 루첸코가 역임했으며, 2024년 6월부터는 제스티안니코프가 의장직을 맡고 있다.

## 볼로그다 주 의회<sup>12)</sup>



9) <https://vologod.er.ru/person/c38bd9e4-d0fc-41e4-a696-5967d6b16adc>

10) <https://vologod.er.ru/person/c38bd9e4-d0fc-41e4-a696-5967d6b16a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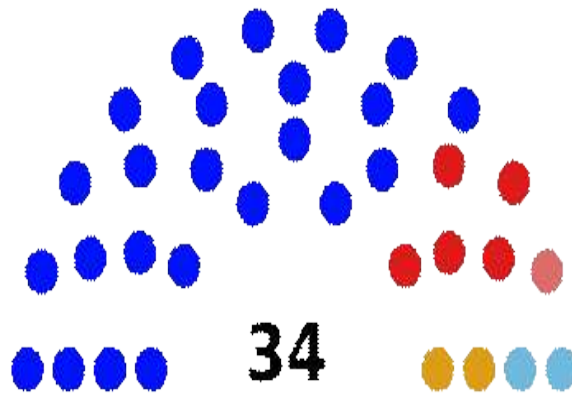
11) <http://council.gov.ru/services/reference/9376/> 검색일 (2025.03.22.)

12) <https://www.vologda.kp.ru/daily/27496/4756032/> (검색일: 2025.03.22.)

### 블로그다 주 의회 의장<sup>13)</sup>



현재 정당<sup>14)</sup>에 따른 주의회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sup>15)</sup>



- 통합러시아당(ЕДИНАЯ РОССИЯ) - 24석 (2석 상원 의원, 1석 국가 두마 의원으로 선출)
- 정의러시아당(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 2석
- 러시아공산당(КПРФ) - 5석
- 러시아자유민주당(ЛДПР) - 2석
- 러시아 연금당(Российская партия пенсионеров за социальную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 1석

### 2.3 2011년 총선<sup>16)</sup>

13) <https://www.vologda.kp.ru/daily/27496/4756032/> (검색일: 2025.03.22.)

14) 여기서 정당은 Фракция를 말하는데 사용되었다. 원칙적으로는 Партия가 정당이고, Фракция는 러시아 의회체의 특징적인 단체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본문에서는 정당으로 표현하였다.

15) 블로그다 주 의회 공식 사이트, <https://www.vologdazso.ru/> (검색일: 2025-0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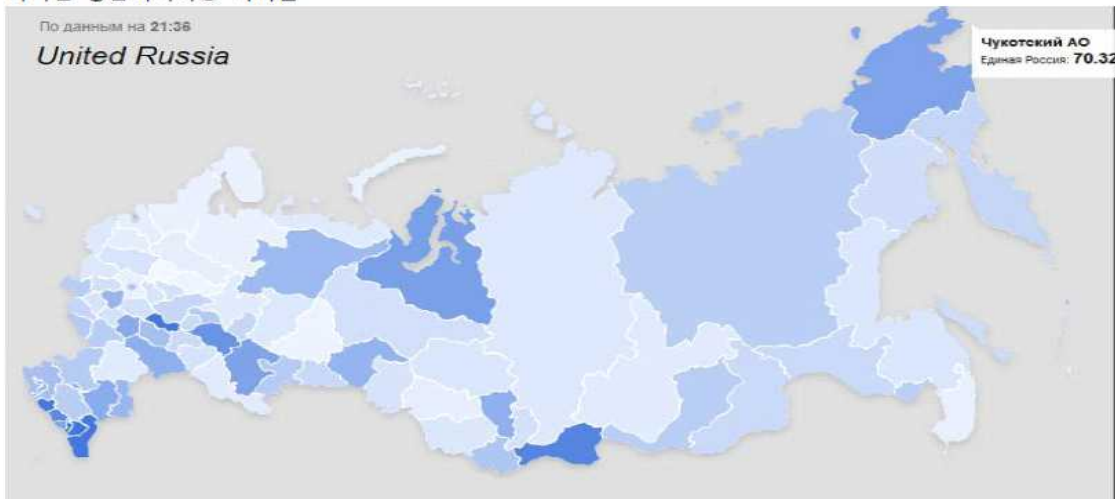
2011년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통합러시아당 전국 지지율 49.29%와 비교하여 볼로그다 주의 통합러시아당 지지율은 33.40%로 전 지역의 지지율에 비해 10%가량 낮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지율이 낮은 것일 뿐 여전히 통합러시아당의 지지율이 볼로그다 주 내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볼로그다 주에서 두 번째로 지지율이 높은 당은 정의러시아당이며 러시아 전체 주에 비해 정의 러시아당의 지지율이 14%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 지역별 당 지지율<sup>4</sup>

단위:%

지역	무효 표	결과	정의러시아당	러시아자민당	러시아 애국당	러시아 공산당	야블로코	통합러시아당	우파세력 연합
전국	1.58	60.08	13.25	11.68	0.97	19.20	3.43	49.29	0.60
볼로그다	1.77	56.26	27.15	15.43	1.27	16.78	3.46	33.4	0.73

지역별 통합러시아당 지지율<sup>5</sup>



## 2.4 대통령선거<sup>17)</sup>

### 2.4.1 2012년 대통령 선거

2012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볼로그다주와 모스크바 비교<sup>6</sup>

단위%

	푸틴	주가노프	지리노브스키	프도코로프	미로노프	결과	무효 표
볼로그다 주	59.44	15.35	8.13	9.38	6.62	61.67	1.08
모스크바	46.95	19.18	6.3	20.45	5.05	58.18	2.06

16) 일렉트로지오그래피 홈페이지 <http://www.electoralgeography.com>

17) 일렉트로지오그래피 홈페이지 <http://www.electoralgeography.com>

블라지미르 푸틴의 러시아 전국적 지지율<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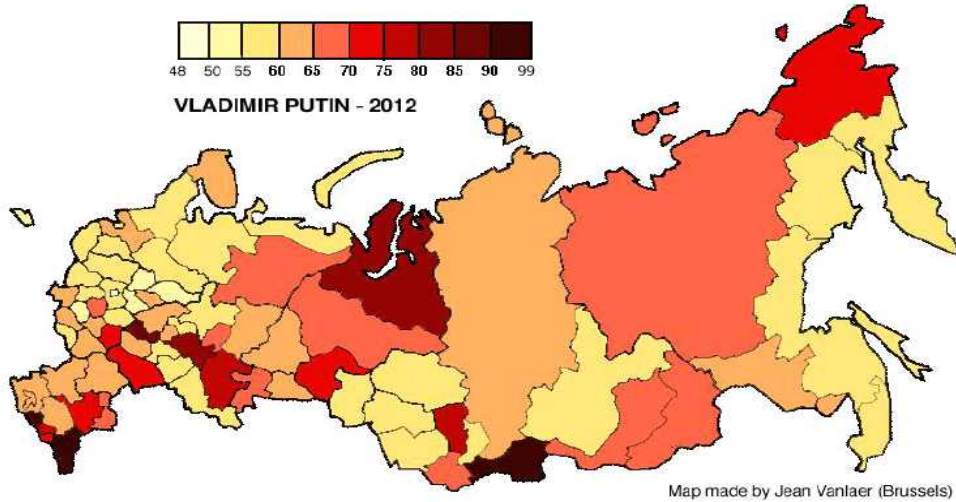


표 1. 2012년 러시아 대선 잠정 개표결과

후보	정당	득표수	득표율(%)
블라디미르 푸틴	통합러시아당	45,602,075	63.60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당	12,318,353	17.18
미하일 프로호로프	무소속	5,722,508	7.98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자유민주당	4,458,103	6.22
세르게이 미로노프	정의러시아당	2,763,935	3.85

자료: Rianovosti,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

2012년 대선 결과를 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전국 지지율은 63.60%이다. 그 중 볼로그다 주 지역을 살펴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59.44%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볼로그다 주 지역의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 보다 4%가량 낮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지지율 46.95%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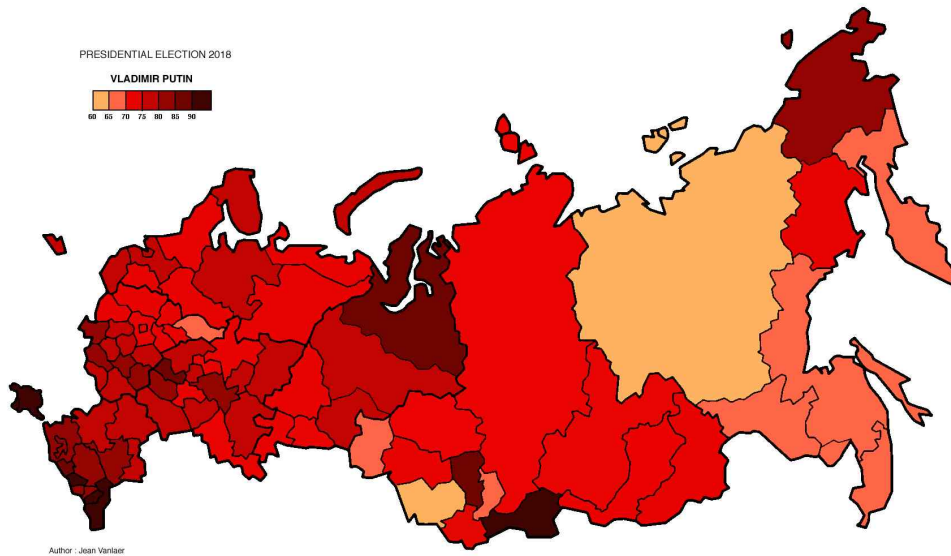
푸틴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인 주가노프 후보의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볼로그다 주의 주가노프 후보 지지율은 러시아 연방 전체 지지율 17.18%보다 2%가량 낮은 15.35%를 나타낸다.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러시아 연방 전체 지지율보다 높은 19.18%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로그다 주는 러시아 수도와는 푸틴 대통령과 주가노프의 지지율이 반대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18) Вологда регион. <http://volgda-region.ru/news/2018/3/19/bolee-72-vologzhan-podderzhali-na-vyborah-vladimira-putina>

## 2.4.2 2018년 대통령 선거

표 4 <2018년 대통령 선거 후보별 득표율><sup>19)</sup>

후보	러시아 연방 <sup>20)</sup>	블로그다 주 <sup>21)</sup>
푸틴 Путин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76.69%	72.41%
그루지닌 Грудинин Павел Николаевич	11.77%	12.08%
지리노프스키 Жириновский Владимир Вольфович	5.65%	8.71%
소브차크 Собчак Ксения Анатольевна	1.68%	2.13%
야블린스키 Явлинский Григорий Алексеевич	1.05%	1.28%



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2018년 3월 18일에 열렸다. 전체 득표율 블라디미르 푸틴은 무소속 77%의 득표율로 집권 2년 연속 재선에 성공했다. 러시아 자민당 출신 블라지미르 지르노브스키(Vladimir Zhirinovsky)는 5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다. 다른 후보로는 파벨 그루딘(Pavel Grudinin 공산당), 세르게이 바부린(러시아 전민동맹), 크세니아 소박(Ксения Собчак), 막심 수라킨(Максим Сурайкин)이 있었다. 블로그다 지역에서 푸틴이 76%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으며, 파벨그루딘은 12.08%로 2위를 차지했으며, 1.28 그레고리 야블린스키, 막심 수라킨, 세르게이 바부린1% 지지율도 받지 못했다.<sup>22)</sup>

19) <https://tass.ru/politika/5058919> 검색일 2025-03-17

20) <https://www.interfax.ru/elections2018/604908> 2025-03-17

21) <https://ria.ru/20240318/putin-1933910601.html> 2025-03-17

22) 일렉트로지오그래피 홈페이지 <http://www.electoralgeography.com> (검색일:2019.05.04.)

### 2.4.3 2024년 대통령 선거

표 5 <2024년 대통령 선거 후보별 득표율>

후보	러시아 연방 <sup>23)</sup>	블로그다 주 <sup>24)</sup>
푸틴 Путин,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87.28%	79.74%
하리토프 Харитонов,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4.31%	5.66%
다반코프 Даванков, Владислав Андреевич	3.85%	7.01%
슬루츠키 Слуцкий, Леонид Эдуардович	3.20%	5.77%

2024년 블로그다주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유권자들의 높은 참여가 눈에 띄었다. 2018년 66.2%였던 득표율이 2024년에는 73.5%로 증가했으며, 약 650,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러한 득표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SNS 및 온라인 홍보 강화, 주민과의 직접 소통 활성화, 도시 개발 및 예산 투입 등이 꼽힌다.

블로그다주 행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지사 및 행정기관의 성과를 '전·후 비교' 방식으로 홍보했다. 또한, 주지사 및 지자체장들은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사항을 리스트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와 함께 도시 개발 및 예산 투입을 통한 지역 발전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블로그다와 체레포베츠 도시에 4.4억 루블의 추가 예산을 배정하여 인프라 개선 및 주거 환경 변화를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었고,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도 다각적으로 진행되었다. "블로그다 - 우리의 선택!" 퀴즈 대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TV, 스마트폰 등 2,000개 이상의 경품을 제공했고, 특히 젊은층을 겨냥한 온라인 및 전자투표(ИЭГ)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약 10만 명(전체 유권자의 10% 이상)이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학생 및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창작 콘텐츠 공모전(노래, 영상, 포스터 등)을 진행하고, 투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보트, 손목시계, TV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추첨 이벤트를 마련했다.

투표소 운영도 확대되어 총 917개의 투표소가 설치되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위해 가정 및 병원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 덕분에 2024년 선거에서 블로그다주는 기록적인 득표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sup>25)</sup>

23) <https://www.interfax.ru/elections2018/604908>

24) <https://ria.ru/20240317/vybory-1924359788.html>

25) <https://rg.ru/2024/03/26/reg-szfo/istoricheskij-rekord.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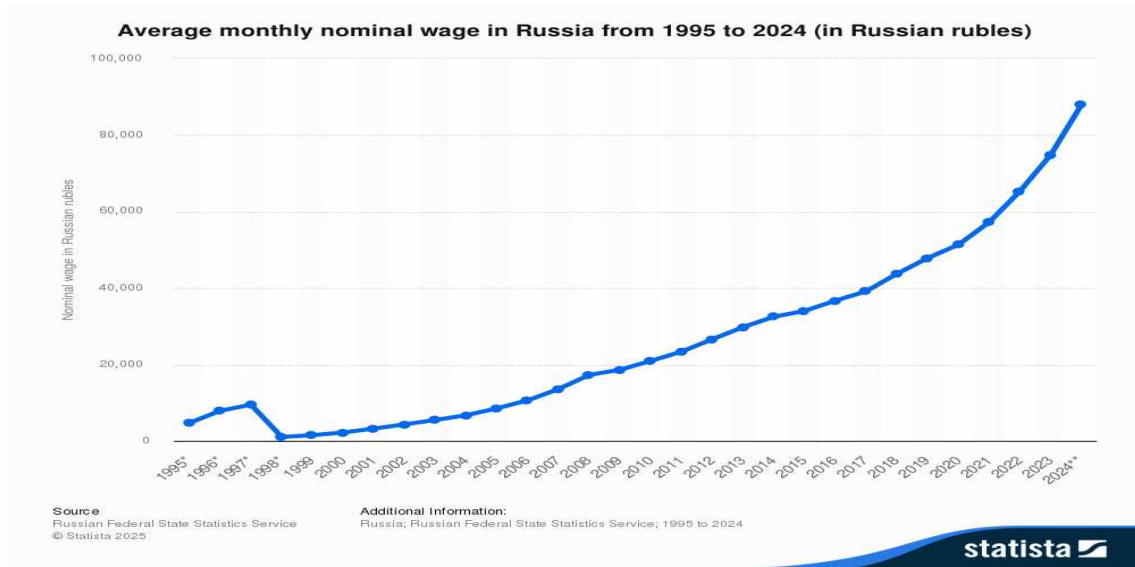
### 3. 경제

#### 3.1 경제개황<sup>26)</sup>

블로그다 주는 러시아에서도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이다. 지역 산업은 블로그다의 지역 경제의 44%를 차지한다. 제조업 부분에서 재료공학 부분이 가장 발전했다. 블로그다 주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철강을 생산하고 있다. 철강 생산은 블로그다 주 상품 생산의 52.3%를 차지하며, 화학 제품은 16.3%, 식료품은 7.3%, 기계 건축산업 4.1%, 삼림 3.9%, 기타 16.1%를 차지한다. 산업구조에서 생산량의 93.4%를 전기, 에너지, 가스, 증기의 공급에 사용한다. 또한 주 산업생산은 금속공학을 제외한 완제품의 생산이다. 화학제품 및 화학제품의 생산, 목재의 가공 및 가구, 기계, 장비의 생산 등을 한다. <sup>27)</sup>2018년 한 해 동안 블로그다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자본 투자 규모는 1490억 루블(228억 달러)로 2017년 수준보다 2.3% 증가했다. 특히나 주요 투자 사업인 금속, 화학, 목재 산업, 파이프 라인 수송 분야에서 상당한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8년 한 해동안 블로그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양이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업 생산량은 북서부 연방관구에서 4위 러시아 연방 전체에서 18위를 차지했다.

#### 3.2 블로그다 주 평균 임금

그림 19 <루블 표시 러시아 연방 월평균 임금 1995-2024><sup>28)</sup>



26) 블로그다 주정부 사이트 ‘경제’ [http://vologda-oblast.ru/o\\_region/ekonomika/](http://vologda-oblast.ru/o_region/ekonomika/)(검색일:2019.05.04.)

27) 블로그다 주정부 사이트 “Экономика” (검색일:2019.05.06.)

28) Average monthly nominal wage in Russia from 1995 to 2024,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10660/russia-average-monthly-nominal-wage/> (검색일: 2025-05-11)

그림 20 <루블 표시 러시아 연방 주체별 월평균 임금 2015-2024><sup>29)</sup>

단위 (루블)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임금	34030	36709	39167	43724	47867	51344	57244	65338	74854	89069

\* 2015년 크림 공화국 제외, 2022-202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병합 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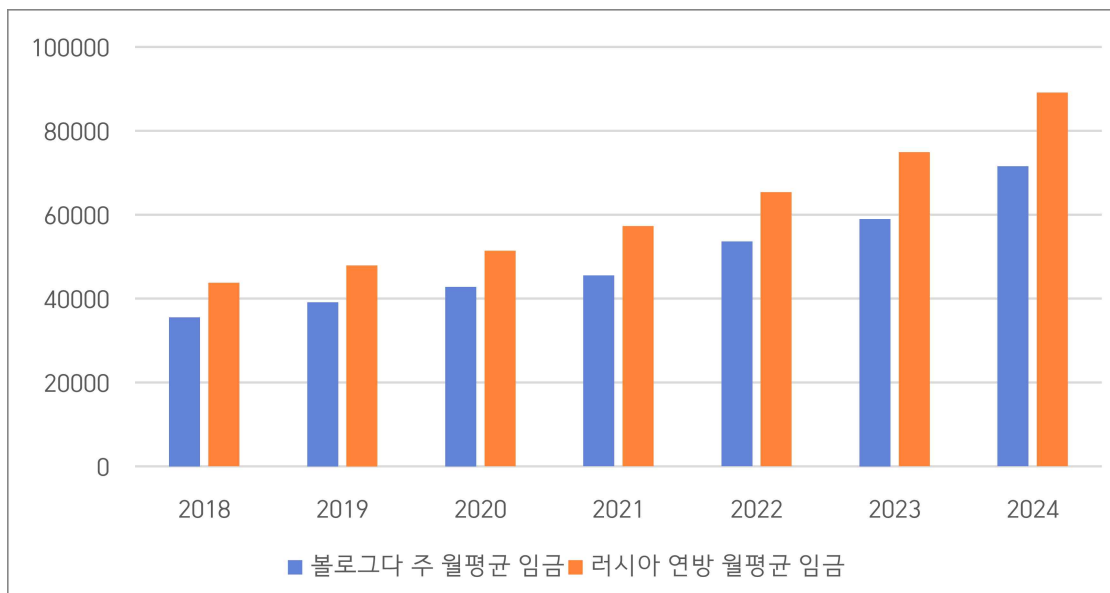
러시아 연방통계청(Rosstat)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러시아 전체의 평균 월급은 34,030루블이었으며,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20년에는 51,344루블, 2024년에는 89,069루블에 이르렀다. 10년간 약 2.6배 상승한 수치로, 명목임금 기준으로 러시아 연방 전체의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림 19 <루블 표시 블로그다 주 월평균 임금><sup>30)</sup>

단위 루블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Bcero	35497	39116	42775	45463	53580	58939	71493

그림 19 <루블 표시 블로그다 주 월평균 임금 (루블)>



러시아 연방 통계청 및 블로그다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29) Рынок труда, занятость и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https://rosstat.gov.ru/labor\\_market\\_employment\\_salaries#](https://rosstat.gov.ru/labor_market_employment_salaries#) (검색일: 2025-06-08)

30) АРынок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ь населения, бл로그да 주 통계청, [https://35.rosstat.gov.ru/storage/mediabank/уточненные\\_2018-2024\\_зарплата.pdf](https://35.rosstat.gov.ru/storage/mediabank/уточненные_2018-2024_зарплата.pdf) (검색일: 2025-06-08)

한편, 볼로그다 주의 월평균 임금은 2018년 35,497루블에서 2024년 71,493루블로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약 2.01배의 상승을 기록한 수치로, 증가 속도 면에서는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볼로그다 주의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89,069루블)의 약 80.2%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볼로그다 주는 금속 가공과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 산업 기반이 강하지만 에너지 자원 중심의 고임금 산업이 밀집한 북부 지역의 자치구나 대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3 볼로그다 지역 총생산(GRP)

표 4 <2023년 북서연방관구 지역총생산><sup>31)</sup>

연방 주체	지역 총생산*	인구수**	1인당 생산***
러시아 연방 전체***	157,074,172.0	146,150,789	1,074,740.50
북서연방관구	19,262,161.6	13,840,352	1,391,739.29
카렐리야 공화국	434,291.1	523,856	829,027.63
코미 공화국	1,049,365.5	720,610	1,456,218.34
아르한겔스크 주	1,263,045.1	998,072	1,265,484.96
네네츠 자치구 단독	501,455.5	42,224	11,876,077.59
네네츠 자치구 제외 아르한겔스크 주	761,589.6	955,848	796,768.52
<b>볼로그다 주</b>	<b>1,081,822.9</b>	<b>1,121,343</b>	<b>964,756.46</b>
칼리닌그라드 주	785,205.9	1,033,914	759,449.92
레닌그라드 주	1,915,187.7	2,035,762	940,771.91
무르만스크 주	1,127,497.3	656,438	1,717,599.07
노보고로드 주	408,968.1	571,447	715,671.10
프스코프 주	288,750.0	581,147	496,862.24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10,908,028.0	5,597,763	1,948,640.56

\*2023년 12월까지 기간 총생산, 기본 가격 기준, 백만 루블 단위 \*\* 인구 2024년 1월 기준, 러시아 전체 인구 \*\*\* 단위, 루블

31) 러시아 연방 통계청, <http://www.gks.ru> (검색일: 2025-0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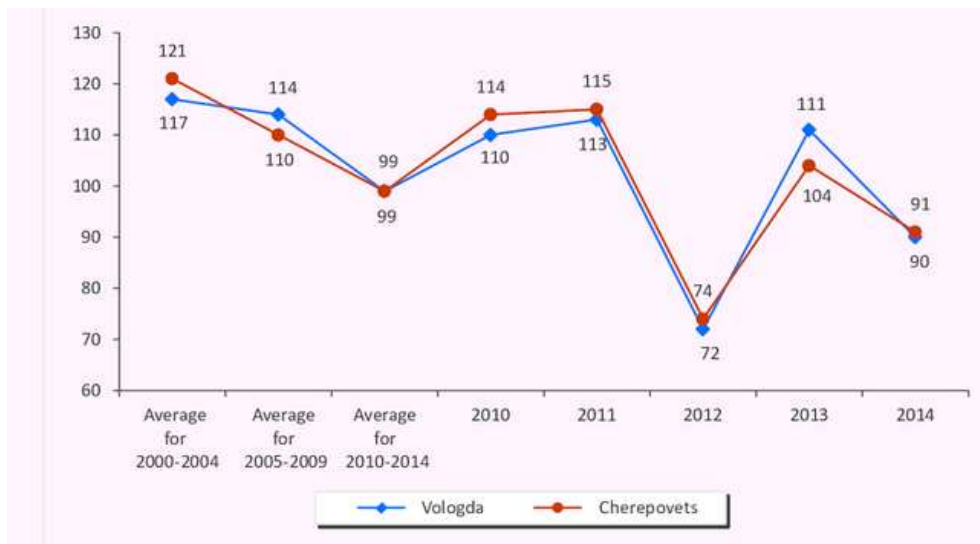
2016-2023 블로그다주 GRP 및 실물 성장 추이<sup>32)</sup>

연도	액수(백만 루블)	기준가격 기준 전년 대비 성장률
2016	509931,7	101,1
2017	542663,4	100,7
2018	615647,7	102,3
2019	632759,5	99,3
2020	624437,1	98,1
2021	1026496,5	102,9
2022	1020858,9	95,2
2023	1081822,9	102,5

### 3.3 블로그다 주 생산 현황

블로그다의 GRP<sup>33)</sup>는 1998년 2천 3백억 루블에서 2011년 3230억 루블로 성장하였다. 이는 연평균 약 20%에 해당하는 성장률로써 러시아 국가 평균 성장률인 6% 보다 약 3배가 더 많은 수치이다. 그만큼 지역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 졌다는 것을 뜻한다. 블로그다 주 2016~2017년 기준 GRP는 3411억 37만 루블이고 블로그다주 수도인 블로그다시의 GRP는 285억 52만 루블이다. 외국인투자금액은 2619만 달러이고 블로그다의 한달 평균 임금은 약 26749루블정도 된다. 실업률은 5.6%이다.<sup>34)</sup>

다음은 블로그다시와 체르보베츠 시의 1인당 연평균 경제성장률 그래프이다. 2000년~2004년까지 체르보베츠가 블로그다를 121%로 앞서고 있다가 2005년~2009년 블로그다가 114%의 성장률로 체르보베츠를 앞질렀다. 2010~2014년에는 평균 99%로 같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32) <https://35.rosstat.gov.ru/vrp> (검색일:2023.03.22.)

33) 블로그다주 GRP, 월드뱅크 [www.worldbank.com](http://www.worldbank.com)(검색일:2019.06.20.)

34) 러시아연방 투자분석 <https://www.investinregions.ru/en/map/>(검색일:2019.05.04.)

## 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Вологодской области

ВОЛОГДАСТАТ



###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производства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в 2022 году

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в текущих основных ценах) **1 024,2** млрд рублей

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 текущих основных ценах) **903,5** тыс. рубле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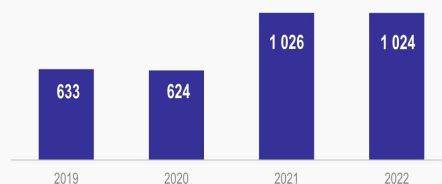
Индекс физического объема  
валовой добавленной стоимости  
(в постоянных ценах;  
в процентах к предыдущему году) **9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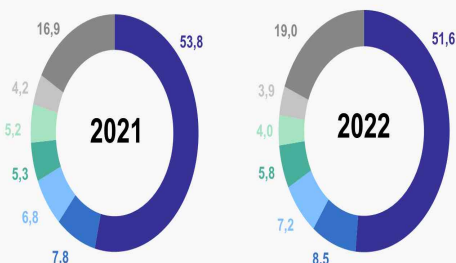
### Динамика объема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2022 год, в текущих ценах, млрд рублей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140 671**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18 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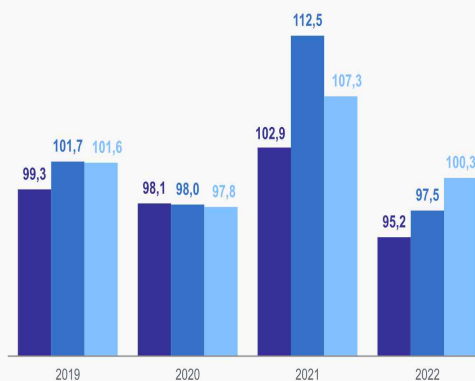
### Отраслевая структура валовой добавленной стоимости, в % к итогу



- Обработывающ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а и хранение
- Торговля оптовая и розничная
- Операции с недвижимым имуществом
- Строительство
- Сельское, лесное хозяйство, охота, рыболовство и рыбоводство
- Прочи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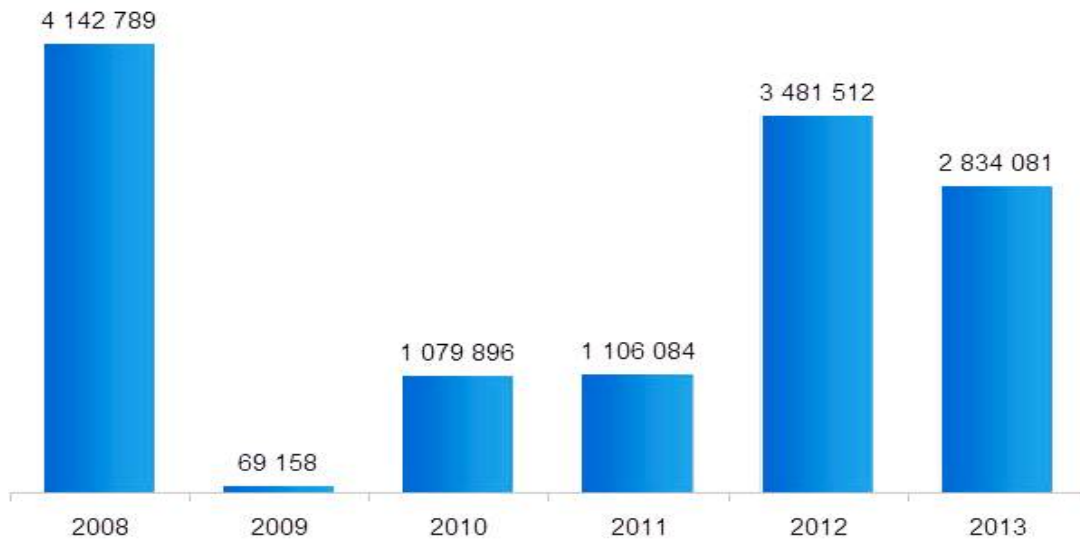
### Динамика индекса физического объема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в % к предыдущему году



- Вологодская область
-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외국인 투자부분은 외국인 자본 참여 표에서 보듯이 조직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매출은 6년 만에 두 배가 되었고 급여는 1.7배가 뛰었다. 동시에 외국인의 투자가 늘고 평균 직원수가 줄었는데 이는 기술,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로그다주 외국인 투자액(단위 US\$) ]<sup>36)</sup>



외국인 투자액은 2013년 기준으로 US \$2,834,081이며 전년의(US \$3,481,512)대81.4% 수준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외국인 투자의 약 0.3%차지하고 있으며 투자국가로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프랑스, 터키, 체코, 핀란드, 영국 등지이다.

외국인 투자액은 대부분 철강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외국인 지분이 있는 회사는 약 200여 개이다. 블로그다는 러시아 최대 시장인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3.4 주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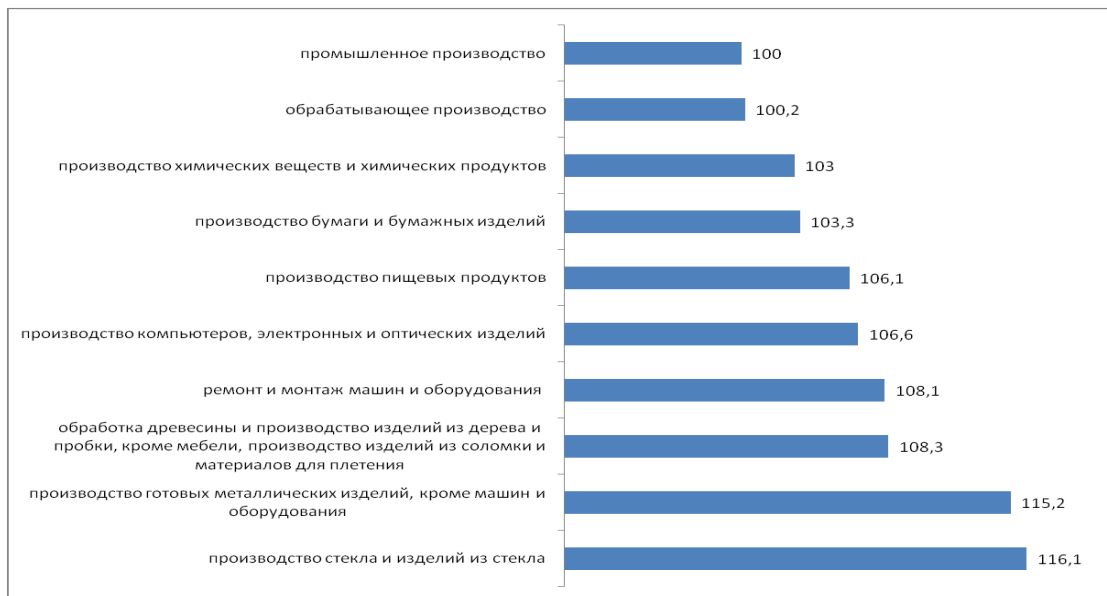
이 지역 주요산업으로는 철강, 화학제품 제조업(체레포베츠), 건설기계 및 금속가공(블로그다), 목공산업이다. 경공업은 주로 아마 관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는 아마방적 공장, 레이스 회사 ‘스네친카’ 및 여러 직물공장 등이 있다. 철강관련 산업은 이 지역에서 항상 중요했다. 몇 년 동안 식품가공, 기계제작, 나무와 유리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해 왔으며,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추어오고 있다. 블로그다 주 정부는 농업에 상당히 많은 지원하고 있다. 이 지역은 모든 주요 생산물이 충분하며, 특히 우유의 생산은 3위, 계란은 8위를 차지하고 있다. 블로그다에서는 금속, 화학과 같은 제조업 부분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표트르 대제 시절부터 발달된 교통 부분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농업 역시 작지만,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6) 블로그다 주 정부 사이트 [http://vologda-oblast.ru/o\\_regione/ekonomika/](http://vologda-oblast.ru/o_regione/ekonomika/)(검색일:2019.05.06.)

표 8 <2022-2023년 블로그다 주 산업별 비중><sup>37)</sup>

		2022	2023
지역 총생산(GRP, 부가가치 총생산 기준)		100	100
하위 항목:			
부문A	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	4,0	3,9
부문B	광업	0,0	0,1
부문C	제조업	51,8	51,0
부문D	전력, 가스 및 증기 공급; 공기 조절	1,6	1,7
부문E	수도,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0,6	0,6
부문F	건설업	3,9	3,1
부문G	도소매업;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업	7,3	7,4
부문H	물류(운송 및 보관)	8,1	8,0
부문I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	0,7	0,6
부문J	정보 및 통신업	1,7	1,6
부문K	금융 및 보험	0,2	0,2
부문L	부동산 거래	5,6	6,3
부문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	2,4
부문N	행정 및 지원 서비스업	1,1	1,1
부문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4,6	5,0
부문P	교육	2,8	2,8
부문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2,9
부문R	문화, 스포츠, 여가 및 오락 서비스업	0,9	0,9
부문S	기타 서비스업	0,3	0,4

2023년 동일 기간 대비 2024년 산업 성장률 지표(1월-11월)<sup>38)</sup>



37) <https://35.rosstat.gov.ru/vrp> (검색일:2025.03.22.)

38) 러시아연방 투자분석 지도 <https://www.investinregions.ru/en/map/>(검색일:201.05.04)

블로그다 주의 주요 산업은 야금 산업(금속 가공),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 목재 가공 및 목재·코르크 제품 제조(가구 제외), 제지 및 종이 제품 생산, 완제품 금속 제품 제조, 식품 생산, 기계 및 장비 제조 등이다. 2024년 1월~11월 동안 자체 생산된 제품 출하량, 수행된 작업 및 제공된 서비스의 총 규모는 1조 2,454억 루블에 달했으며, 1인당 산업 생산량은 90만 3,700루블로 러시아 평균보다 1.48배, 북서 연방관구 평균보다 24% 높았다. 이에 따라 블로그다 주는 2024년 1월~11월 기준 북서 연방관구 내에서 4위, 러시아 전체에서는 12위를 기록했으며, 2023년 같은 기간 동안의 산업 생산지수는 100%로 전년 대비 유지되었다.<sup>39)</sup>

2021~2023년 산업별 생산량 - 출하액 기준<sup>40)</sup>

명목 기준, 단위: 백만 루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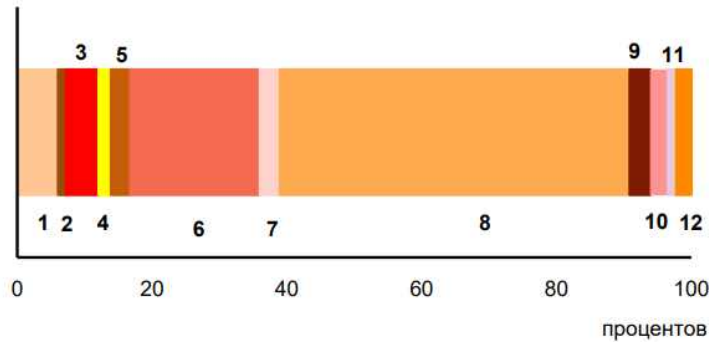
산업 분야	2021	2022	2023
<b>광업</b>	<b>654,8</b>	<b>714,3</b>	<b>806,6</b>
<b>제조업</b>	<b>1,249,980.80</b>	<b>1,213,751.60</b>	<b>1,195,023.10</b>
- 식품 생산	65,184.30	72,662.60	67,500.40
- 음료 생산	6,253.30	7,075.80	5,778.40
- 섬유 제품 생산	1,149.10	808.5	1,351.80
- 의류 생산	813.2	683.2	740
- 가죽 및 가죽 제품 생산	37.6	22	26.4
- 목재 가공 및 목재 제품 생산 (가구 제외)	62,784.60	49,028.60	45,850.00
- 종이 및 종이 제품 생산	13,251.50	11,148.90	9,322.50
- 인쇄 및 정보 매체 복제	462.3	516.3	792.5
-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생산	239,776.10	335,867.50	252,686.40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4,190.50	7,912.80	6,864.80
-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생산	17,620.50	26,065.70	23,303.50
- 금속 가공	752,479.10	594,350.40	635,496.30
- 기계 및 장비 제외 금속 제품 생산	44,649.80	49,809.10	68,103.10
-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생산	1,108.90	8,206.30	19,141.40
- 전기 장비 생산	1,285.80	1,522.00	4,581.50
- 기타 기계 및 장비 생산	8,731.60	12,681.70	10,238.90
-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생산	2,573.60	4,121.00	9,348.20
- 기타 운송 장비 및 장치 생산	2,411.10	457.7	531.6
- 가구 생산	1,827.70	1,663.60	1,442.40
- 기타 완제품 생산	887	680	870.6
- 기계 및 장비 수리 및 설치	9,542.20	11,285.10	14,598.10
<b>전기, 가스, 증기 공급 및 공기 조절</b>	<b>37,766.20</b>	<b>40,957.10</b>	<b>45,122.00</b>
<b>수자원 공급, 하수 처리, 폐기물 수집 및 처리</b>	<b>11,137.20</b>	<b>10,217.20</b>	<b>14,698.2</b>
			<b>0</b>

39) 블로그다 주 공식 홈페이지 [https://xn--80aacfcg6bfffbbd3bgq4owb.xn--plai/o\\_regione/ekonomika/promyshlennost/](https://xn--80aacfcg6bfffbbd3bgq4owb.xn--plai/o_regione/ekonomika/promyshlennost/) (검색일 2025.03.22.)

40) 블로그다 주 통계청 <https://35.rosstat.gov.ru/proizvodstvo#> (검색일:2025.03.22)

2023년 볼로그다 주 산업 구조 (출하액 기준, 네네츠자치구 제외)<sup>41)</sup>

**СТРУКТУРА ОБЪЕМА ОТГРУЖЕННЫХ ТОВАРОВ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ЫПОЛНЕННЫХ  
РАБОТ И УСЛУГ СОБСТВЕННЫМИ СИЛАМИ  
ОБРАБАТЫВАЮЩИХ ПРОИЗВОДСТВ  
ПО ВИД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제조업에서는 금속 공학 및 금속 제품 제조업이 58.9%를 차지하며, 화학 물질 및 의약품 관련 제조업이 21.2%로 그 뒤를 따른다. 이 두 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 산업들인 기계, 전자, 식품, 목재 가공 산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이에 따라 볼로그다 주의 경제는 주로 금속 가공과 화학 산업에 의해 주도된다. 2022년에는 화학 산업이 비중이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금속 가공 산업이 다시 성장하며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다.

**금속공업<sup>42)</sup>**

볼로그다 주는 철강산업의 최일선의 지역이다. 금속산업은 볼로그다 주에서 항상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산업이었다. 체레포베츠는 철강 분야의 본고장이다. 세베르스탈 제철소는 러시아의 가장 큰 철강 생산업체이다. 여기서는 다양한 범위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여러 고온 철강, 저온 철강 또는 아연, 알루미늄 판, 그리고 철 와이어 등을 생산한다. 생산된 제품은 한국, 미국, 중국, 대만, 포르투갈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볼로그다 주는 기계 공학이 발달되어 있다. 볼로그다에는 베어링을 만드는 '볼로그다 베어링 공장'이 있으며, 목재를 가공하는 도구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광학 기구를 만드는 공장, 유제품 제조 기계 공장, 가전 제품을 만드는 공장 등 여러 공장이 존재한다. 기계 산업은 러시아와 해외 산업 눈높이를 충족하도록 할 것이며, ISO 9001:2000을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었다는 것은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기업들은 여러 박람회 등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 고객에게 어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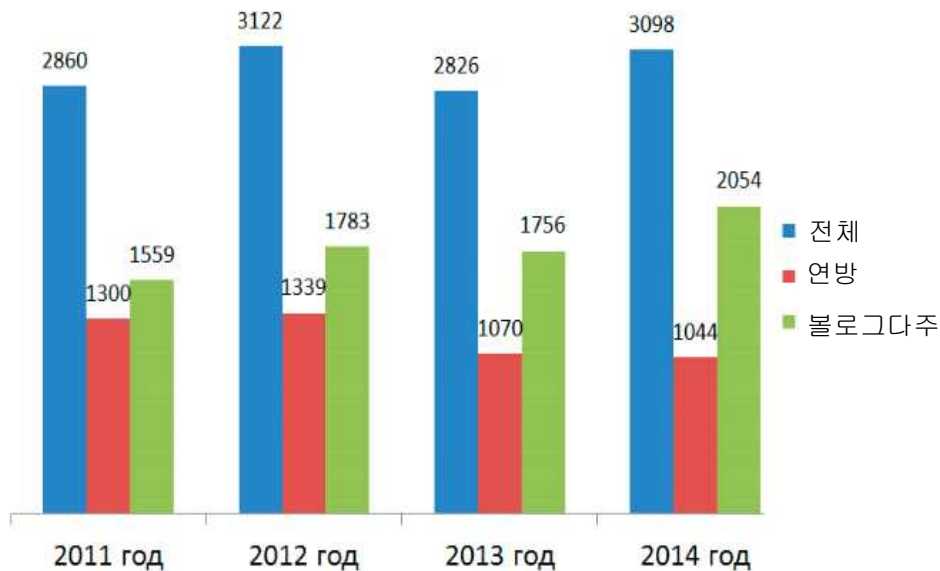
41)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вци и 2024

42) 볼로그다 주 [http://vologda-oblast.ru/o\\_regione/ekonomika/promyshlennost/metallurgiya/](http://vologda-oblast.ru/o_regione/ekonomika/promyshlennost/metallurgiya/)

## 목재산업

비록 볼로그다가 철 생산의 중심지이지만 화학이나 농업과 같은 산업 잠재력도 있다. 산림은 볼로그다 지역의 70%를 차지하며 작년부터 목재 생산이 크게 늘었다. 볼로그다 정부는 이러한 목재를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주 정부는 매 년 목재 박람회(wood conference fair)를 개최하는 등, 상당히 많은 관심을 이 분야에 쏟고 있다. 이 지역의 경쟁력 있는 목재 회사로는 볼로그라드 레소프로무식렌키와 체레포베츠레스 등이 있다.

[ 목재업으로 인한 수익(단위 백만 루블) ]<sup>43)</sup>



목재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채벌이 17%, 목재가공업이 73%, 펄프 및 제지산업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볼로그다주에는 약 150여개의 목재가공업체가 운영중에 있으며 주로 소콜, 그라조베츠, 체레포베츠 등 러시아 내륙과 철도 및 해상 운송시스템이 갖추어진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채벌이나 가공중에서 생산되는 톱밥은 천연 바이오 연료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볼로그다 주의 채벌 등 목재산업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는 유럽 및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화학산업<sup>4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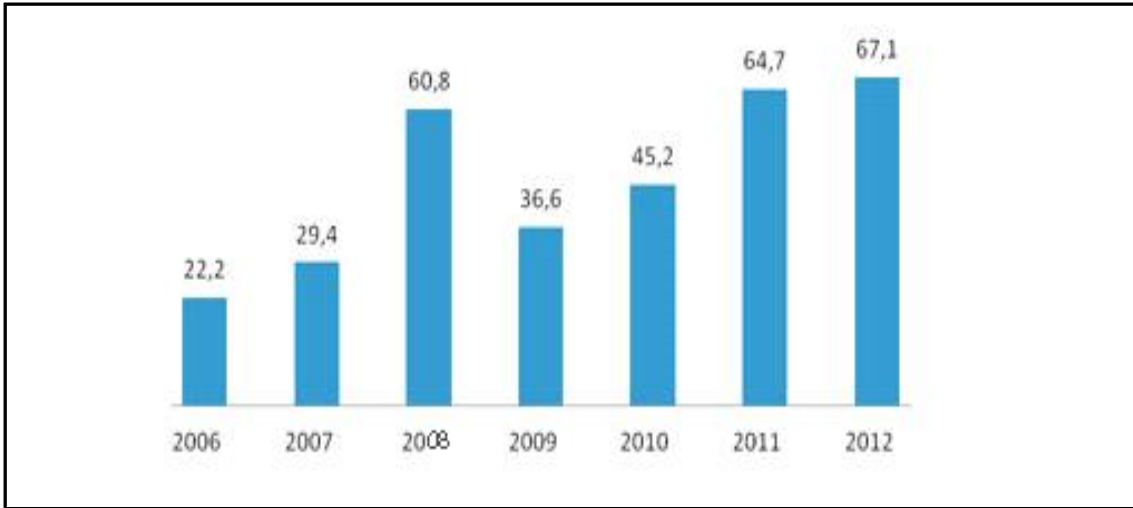
볼로그다는 또한 화학 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다. 체레포베츠는 볼로그다 주의 화학산업 중심지이다. 인산계, 질소계 비료 및 황산, 알루미늄 등을 생산한다. 체레포베츠 소재 PhosAgro-Cherepovets는 유럽내 최대 인산계 비료 생산회사이다. PhosAgro-Cherepovets는 2012년 Ammophos and Cherepovetsky Azot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으며 비료 수출시장에서 약 80%의 물량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한 제품들은 국제표준(ISO)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43) 볼로그다 주정부 사이트

[http://vologda-oblast.ru/o\\_regione/ekonomika/promyshlennost/lesopromyshlennyy\\_kompleks/](http://vologda-oblast.ru/o_regione/ekonomika/promyshlennost/lesopromyshlennyy_kompleks/)

44) 볼로그다 주정부 사이트 '경제' <http://vologda-oblast.ru/>

블로그다주 화학제품 생산량(단위 : 억루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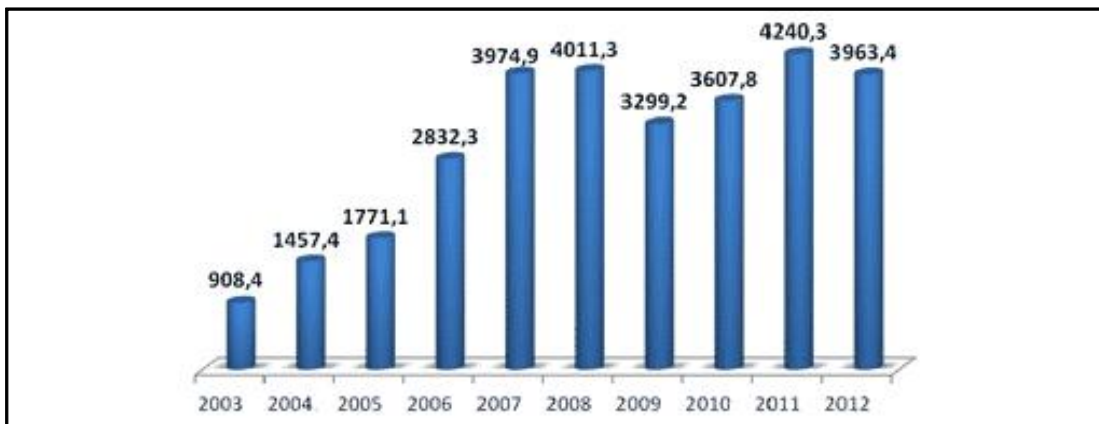


블로그다주 소재 화학기업들은 다양한 비료생산을 위해 최첨단 생산설비를 설치, 기술혁신을 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품 개발에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품이 세계 품질기준과 생태학적, 환경적 요구사항 및 산업안전 표준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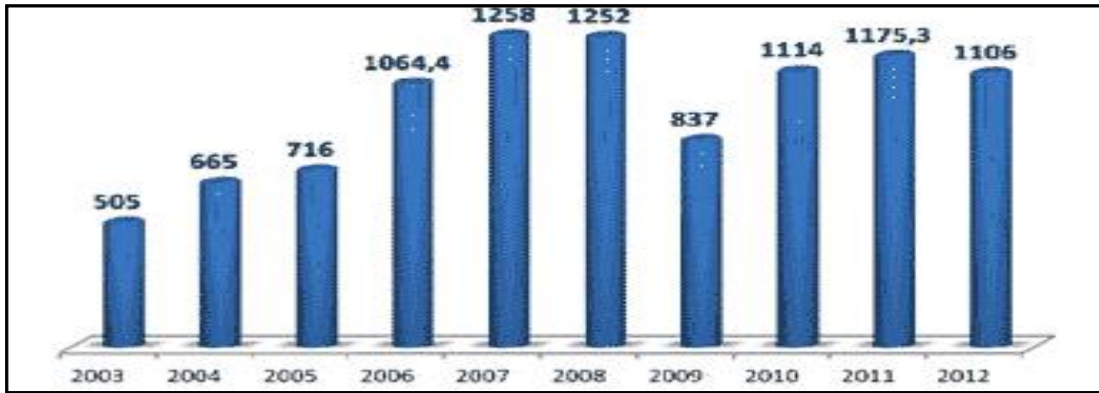
#### 유리산업

블로그다에서 유리 산업은 차고다 유리 공장과, 러시아 로콥스키 유리 공장, 스메르도프스키 유리 공장이 있다. 2011년 유리 공장 생산량은 약 11억 6백만병에 달하여 러시아 연방의 생산량에 12%를 차지한다. 기업들은 2008년부터 생산 및 관리시설의 현대화를 구축하여 최근 10년새 블로그다는 유리 제품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주로 생산되는 유리제품은 와인 잔, 맥주 잔, 샴페인 병 등이 있다.

유리 생산량( 단위 : 백만루블, 출처 : 블로그다 주정부 사이트)



유리병 생산량(단위 : 백만개, 출처 : 볼로그다 주정부 사이트)



농업<sup>45)</sup>

볼로그다는 농산 복합체가 발달하였다. 전통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여러 첨가물을 뿌리지 않아 깨끗한 토양에서 작물 재배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거의 모든 작물을 자급 충당하고 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로, 곡물과 육류, 가금류와 우유를 자급자족한다. 그래서 볼로그다의 농부는 러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직업으로 꼽힌다. 볼로그다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먹여 살리기도 한다.



농업관련 산업은 지역 노동인구의 약 7.2%를 고용하고 있으며 농장과 농업관련 기업이 전체 생산의 72.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축산업이 65%이며 영농 제품이 35%이다.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장의 가축수는 16만 7천여마리이다.

관련 기업은 25개로 이들은 새로운 품종 및 재배기술을 활용하여 불리한 기상 조건하에서도 최고급의 아마 섬유 및 아마 씨앗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볼로그다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98% 이상이 모두 최상위 등급이다. 좋은 품질의 우유, 버터 등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 볼로그다 지역 우유와 1인당 달걀 생산량 면에서 러시아 10위권을 차지한다.

볼로그다의 농지는 전체 영토의 10%정도이며 농경지의 70%에서 작물 재배 및 건초 만들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작물은 겨울 호밀, 보리, 귀리 등이다. 주정부는 농업을 장려하기

45) 볼로그다 주정부 사이트(영문) [http://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economy/agribusiness/](http://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economy/agribusiness/)

위해 관련 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고속도로, 학교, 스포츠 단지, 통신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젊은이들의 농업참여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 귀농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 모든 농업생산업종별 생산량은 2840억루블로 2014년 대비 3.8%증가했고 농산물 재배량은 940억루블에 달했다. 2014년에 비해 4.2%로 꾸준히 증가치를 보이고 있다. 블로그다 주 정부는 2018년 러시아연방농업부가 매년 개최하는 러시아 농업전시회에 현지 원료와 전통방식으로 만든 섬유 및 블로그다 유제품(우유, 버터등)을 전시했다.<sup>46)</sup>

#### 수공업<sup>47)</sup>

블로그다의 수공업품으로는 레이스, 금속가공품, 자수, 나무조각과 회화, 자작나무 껍질, 세라믹, 점토 장난감, 도자기 등이다. 특히 레이스 공예는 17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독특하고 다양한 패턴의 공예로 거듭났다. ‘스네진카’는 레이스를 만드는 주요기업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전통기법을 잘 고수하고 있어 러시아 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나무공예는 식기와 장식품 생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숙련된 장인들이 손으로 만들고 있다. 회화는 일반적으로 붉은색과 노란색을 사용하며 꽃, 잎, 조류, 동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 장식품으로는 촛대, 달걀껍, 뚜껑없는 그릇, 숟가락, 머그컵 등을 생산하고 있다.

46) 블로그다 주정부 사이트

[http://vologda-oblast.ru/o\\_regione/ekonomika/promyshlennost/narodnye\\_promysly/](http://vologda-oblast.ru/o_regione/ekonomika/promyshlennost/narodnye_promysly/)(검색일: 2019.05.04.)

47) 블로그다 주정부 사이트

[http://vologda-oblast.ru/o\\_regione/ekonomika/promyshlennost/narodnye\\_promysly/](http://vologda-oblast.ru/o_regione/ekonomika/promyshlennost/narodnye_promysly/)

### 3.5 대외 무역<sup>48)</sup>

블로그다는 16세기 영국인 리처드 찬슬러의 항로 탐색을 계기로 영국과 교역하기 시작했다. 이후 블로그다는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과 교역을 시작했다. 북부의 천연자원이 주요 수출 품목이 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버터가 주요 수출품목이 되었고 20세기 초반에는 터키와 중동지역까지 수출지역이 확대되었다. 상공업이 발전하면서부터는 블로그다주의 철, 화학, 기계 건축설비 등이 수출되고 있다. 블로그다는 113개국과 교역하고 있으며 주요 무역 파트너로는 대외무역의 58%를 차지하는 벨라루시, 인도, 독일, 미국, 브라질, 영국, 우크라이나, 터키, 라트비아, 벨기에 등이 있다.

[2010~2015 블로그다주 대외무역 규모(단위 : 백만\$)<sup>49)</sup>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b>External trade, total</b>	<b>4 304,0</b>	<b>5 713,1</b>	<b>5 108,1</b>	<b>4 777</b>	<b>4 389</b>	<b>4 043,2</b>	<b>3 485,1</b>
foreign countries	3 492,0	4 640,9	4 012,3	3 754,6	3 565,4	3 359,4	2 963,7
CIS-countries	812,0	1 072,2	1 095,9	1 022,3	823,6	683,8	521,4
<b>Export, total</b>	<b>3 941,4</b>	<b>4 926,7</b>	<b>4 456,9</b>	<b>4 103</b>	<b>3 720,7</b>	<b>3 359,4</b>	<b>2 881,4</b>
foreign countries	3 213,1	4 017,2	3 524,3	3 280,9	3 157,3	2 901,2	2 464,2
CIS countries	728,3	909,5	932,6	822,1	563,4	458,2	417,2

48) 블로그다 주정부 사이트(영문) [http://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economy/foreign\\_economic\\_activity/](http://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economy/foreign_economic_activity/)

49) 블로그다주 공식 사이트 대외무역현황  
[https://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economy/foreign\\_economic\\_activity/](https://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economy/foreign_economic_activity/)(검색일: 2019.05.06.)

[2021년 블로그다주 대외무역 현황(단위 : 백만\$)<sup>50)</sup>

2021년 1월~9월 간 블로그다 주 수출입 표		
	단위: 백만 달러	2020년 1~9월 동기간 대비 무역량
<b>수출</b>	<b>5086,6</b>	<b>154,6</b>
CIS 국가 외	4552,9	162,6
CIS 국가	533,7	108,7
<b>수입</b>	<b>446,1</b>	<b>71,4</b>
CIS 국가 외	319,3	59,3
CIS 국가	126,8	146,5

[블로그다 주요 교역 국가]



2014년 기준으로 블로그다의 대외무역 규모는 43억 8,9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8.1% 감소한 수치이다. 주요 수출품은 철, 비철금속, 화학제품, 목재, 산업설비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금속, 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연료, 가스, 에너지 및 목재제품이다. 특히 수입의 대부분은 기계 및 건축자재로 전체의 69%를 차지한다.

한편, 2011년말에는 세계적 식품회사인 네슬레와 합작으로 유아식품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이미 2010년 1월부터 블로그다는 네슬레의 'Bistrov'라는 새로운 시리얼 생산라인을 건설,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블로그다는 러시아는 물론 CIS권까지 아기전용 곡물과 인스턴트 시리얼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0)블로그다 주 통계청 <https://35.rosstat.gov.ru/ved> (검색일:2025.04.15)

2016년 기준으로 볼로그다의 대외무역 규모는 34억 8천오백만 달러로 2015년 40억 4천달러 보다 6억 4천달러 약 14%정도 줄어들었다. 주요 교역국으로는 CIS 국가 15%이고 이어서 터키, 독일, 라트비아, 인도, 폴란드, 중국, 프랑스가 있다. 2016년 볼로그다 대외경제활동정책은 대외무역균형과 수출 지향성 유지, 최근 세계시장에 대한 부정적 추세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상품과 서비스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전략적 파트너와 대외 경제 협력 영역을 확대하고, 러시아의 외교정책 및 지역 이익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접촉 확대, 볼로그다 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전략을 취하고 국내 상품 생산업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수입업자들과 투자자들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 교통<sup>51)</sup>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인접한 볼로그다는 해상로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18세기피터 아르한겔스크를 통한 대외무역은 피터대제에 의해서 활성화되었다. 특히나 양초나 비누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동물 기름의 주요 교역품이었다. 볼로그다 해상로를 통과하는 선박들은 발트해, 흑해, 카스피해 지중해 항구 상품을 선적할 수 있게 해준다. 19세기 에는 육상교역로가 생기면서 모스크바-아르한겔스크-상트페테르부르크-우랄지역-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쳐 통과하는데 도로는 11,000km에 달한다. 볼로그다를 관통하지 않는 러시아의 교통로를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볼로그다에서 무르만스크로 가는 직통로 또한 생겼다. 볼로그다 주 항공회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화물이 운송되고 유럽, 아시아의 여행객들이 이용한다.

볼로그다 주 교통체계는 25,600km를 차지하는 버스 노선의 네트워크 이고 총 74600km에 이르는 시외 전기 운송의 8개 노선, 769km 이상을 차지하는 철도 노선과 1577km에 이르는 내륙 수로와 1577km에 이르는 해상 노선을 보유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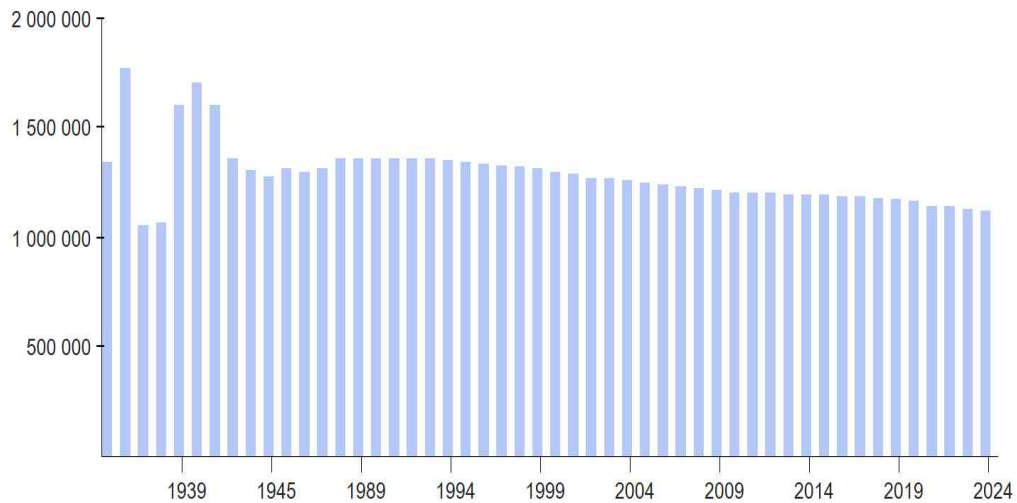
51) 볼로그다 주정부 사이트(영문) [https://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economy/transport/](https://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economy/transport/)(검색일:2019.05.04.)

## 4.사회

### 4.1 인구 및 민족구성<sup>52)</sup>

블로그다 주에는 약 100여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다수가 러시아어를 구사한다. 그러나 바바엡스크에는 훈족이 거주하고 있다. 민족 구성의 대다수는 러시아인이고 소수의 벨로루시인과 우크라이나인이 있으며 몰다비아인, 아제르바이잔인, 그루지아인, 훈족 등이 살고 있다. 2020년 러시아 인구 총 조사를 기준하면 러시아계 96.7% 우크라이나계 0.33%, 아르메니아계 0.16% 아제르바이잔계 0.13% 기타 2.7%를 차지한다.

[전기간 블로그다 인구 변동]



[2023 블로그다 인구 유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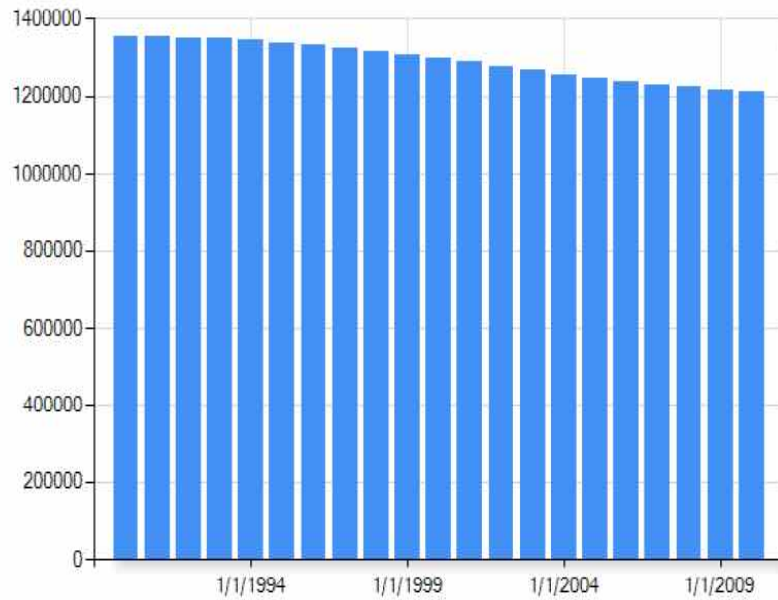
상단(Прибывшие): 유입 인구, 하단(Выбывшие): 유출 인구

하늘색: 지역 내 이주, 청색: 러시아 연방 주체 간 이주, 진청색: 국제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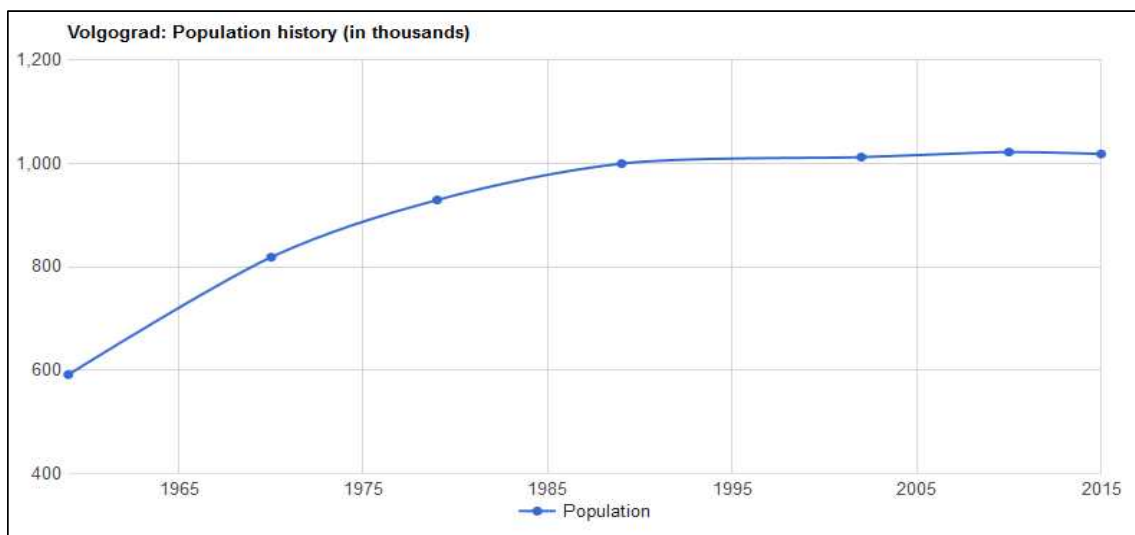
52) 러시아 통계청. Итог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2020 года. [www.gks.ru](http://www.gks.ru) (검색일 2025.03.22.)

[1990~2010 볼로그다 인구 변동]

### Численность постоянного населения, чел.



러시아의 모든 주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볼로그다 주에서도 나타나는데 1994년부터 꾸준하게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그러한 문제이다. 볼로그다 인구는 1975년~85년에 90만에서 100만을 넘었으며 2005년 130만 2013년 119만명(남자 55만 여자 64만)에서 2015년 110만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2018년 117만명의 인구가 볼로그다 주에 거주중이다.<sup>53)</sup>



53) 러시아 통계청 [www.gks.ru](http://www.gks.ru)(검색일:2019.05.06.)

[2016~2025 블로그다 인구 변동]<sup>54)</sup>

연도	인구(단위: 천 명)	도시 거주 비율(%)	지방 거주 비율(%)
2016	1,187.2	72	28
2017	1,183.3	72.09	27.91
2018	1,176.0	72.2	27.8
2019	1,166.9	72.4	27.6
2020	1,159.6	72.4	27.6
2021	1,150.1	72.4	27.6
2022	1,138.4	72.5	27.5
2023	1,128.8	72.5	27.5
2024	1,121.3	72.7	27.3
2025	1,115.4	72.8	27.2

\* 블로그다 주 통계청 및 러시아 연방 통계청 자료 참조 저자 작성

2025년 기준 블로그다에는 1,115만명가량의 인구가 살고 있다. 한편 2022년 기준 블로그다 인구는 1138만명 가량으로 이는 전체 러시아 인구의 0.8%에 해당한다.<sup>55)</sup> 게다가 앞서 언급한 인구 감소 현상은 2025년 현재 기준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 4.2 행정구성

2025년 블로그다 주 행정구역 구성(2024년 1월 이후)<sup>56)</sup>

	총합	муниципальные районы (자치군)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круга (도농통합시)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시)	городские поселения (읍)	сельские поселения (면)
블로그다 주	58	3	23	2	2	28

2024년 1월 1일 기준 블로그다 주에는 총 58개의 지방자치단위가 존재하며, 이 중 3개는 자치군(муниципальные районы), 23개는 도농통합시(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круга)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시 2개(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읍 2개(городские поселения), 면 28개(сельские поселения)가 운영되고 있다.

54) 러시아 통계청, <https://showdata.gks.ru/report/278928/> (검색일 2025.03.22.)

55) 러시아 통계청 [www.gks.ru/](http://www.gks.ru/)

56) 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РФ. С 1 января 2024 года в Вологодской области и изменились коды ОКТМО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15.12.2023. [https://www.nalog.gov.ru/rn35/news/activities\\_fts/14204315/](https://www.nalog.gov.ru/rn35/news/activities_fts/14204315/) ←

볼로그다 시는 볼로그다 주의 행정, 문화, 산업의 중심지이다. 면적은 11만km<sup>2</sup>이며 인구는 30만명이다. 볼로그강, 수호나강, 북드비나강을 통해 백해로 나갈 수 있으며 카스피해 및 흑해는 볼가 발티 수로를 통해 나갈 수 있다. 볼로그다는 역사적 전설을 가지고 있다. 이반뇌제가 16세기 볼로그다를 수도로 정할 생각이었다. 이반뇌제는 자신이 안전할 수 있는 벽돌로 된 수도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중 벽돌이 뇌제로 머리로 떨어지자 불길한 징조로 여겨 수도 건설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볼로그다 크렘린은 최고의 역사적 기념물이자 매우 아름다운 건축물로 남아 있다.

체레포베츠 시는 산업의 중심지로 상당한 경제적 잠재력과 고도로 숙련된 노동인력이 있는 도시이다. 네크라소프 등 러시아 작가들도 작품에서 체레포베츠를 북부의 아테네, ‘잘 사는 도시’로 묘사하곤 했다. 체레포베츠는 철강산업이 유명하지만 철강산업 뿐만 아니라 식품, 목재, 건축 자재 등의 산업들도 발전하고 있어 향후 도시의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밝다고 할 수 있다.

### 4.3 교육<sup>57)</sup>



러시아 볼로그다 주에서는 의무 중등교육, 직업학교, 고등교육 체계가 있다. 볼로그다 주에는 많은 보육원이 있는데 1~7세 사이의 아이들이 다닌다. 주의 중등교육기관은 538곳이 있는데 약 115,433명의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다. 중등교육은 9학년까지 의무교육이다. 중등의무교육의 단계는 우선 6~10세까지의 초등교육 11~15세까지의 중학교과정이 있으며 중학교과정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고 싶을 때는 2년의 기간을 더 학교에서 보낸다.

초등과 중학교는 통합 10년으로 운영된다. 모든 학교는 학업 과목들의 중심 커리큘럼이 있다. 9학년까지 끝내면 학생들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기술적인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기술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그리고 11학년까지 끝냈을 때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다.

#### 4.3.1 과외 활동<sup>58)</sup>

많은 학생들에게 운동, 연극, 음악, 춤과 다양한 클럽활동은 학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학업에 흥미가 없지만 다양한 과외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개인적 성취감을 이룰 수 있고 큰 강점을 만들 수 있다. 과외활동은 실제 세계를 살아가는 방법과 평생의 흥미와 직업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중등교육기관은 과외 활동을 제공한다. 역사, 지리학, 문학, 고고학, 사회학 그리

57) 사진 출처 : 주정부 사이트(영문) ‘교육’ [http://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education/](http://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education/)

58) 사진 출처 : 주정부 사이트(영문) ‘교육 문화과외활동’ [http://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education/extra\\_curricular\\_activities/](http://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education/extra_curricular_activities/)

고 인류학 등의 과목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볼로그다, 체레포비츠, 비렘스스 지역의 소콜, 카두이 키릴로프 그리고 바부시키노의 학교들은 국가에 대한 공부와 지역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볼로그다 주의 학생들은 매년 생태 환경 클럽에 참여한다. 매해 볼로그다 주의 대학들은 식물생물학, 수 생물학, 지구식물학 탐사대를 조직한다.

#### 4.3.2 직업전문대학교와 대학교

기술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볼로그다인들은 기술전문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2년의 전문 대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기초적인 교양과목들도 열심히 해야 한다.

[ 기술대학 지원자(좌), 볼로그다주 국립기술대학교(우)<sup>59)</sup> ]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전문학교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직업학교는 농업대학, 벨리키 우스투크 농업기술전문대학교, 볼로그다 의학전문대학교, 체레포베츠 의학전문대학교 그리고 볼로그다 철도기술학교이다.

볼로그다 직업 기술학교는 해당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취업교육을 제공한다. 기술교육은 학생들이 실습 뿐만 아니라 개념과 이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공예관련된 학교에서는 장인들의 전통을 익히는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등교육은 공립과 사립교육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의 금융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입학 경쟁률은 치열한 편이다. 대학입학은 시험과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대학 입학경쟁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대학 학생들은 학년에 따라 전문지식 습득 및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각자의 취향에 따라 동아리 활동도 하게 된다. 대부분 대학 교육은 무료이며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볼로그다 주립 사범대학교는 1918년에 설립되었으며 1995년 대학교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 학교에는 12개의 과와 42개의 하위 과들이 있으며 10개의 과학 연구소와 천문관측소, 도서관, 컴퓨터시설 그리고 TV 스튜디오와 출판사가 있다.

59) 사진 출처

:

[http://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education/technical\\_colleges\\_and\\_universities/](http://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education/technical_colleges_and_universities/)

블로그다 주 주요 교육기관

블로그다 주 주립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분교	사립대학교
블로그다 사범대학교(Vologda State Teachers' Training University)	모스크바 국립대학 법대(Moscow State Law Academy (branch in Vologda))	블로그다 비즈니스 학교(Vologda Institute of Business)
블로그다 기술대학교(Vologda State Technical University)	체레포베츠 경영관리 IT 대학(Cherepovets University of Management and IT)	러시아 교육 아카데미 대학교 (University of Russian Educational Academy)
블로그다 주립 유제품 아카데미(Vologda State Milk Academy)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 기술 경제대학(블로그다분교)(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Economics)	현대 인문 아카데미(블로그다분교)(Modern Humanitarian Academy)
블로그다 법 경제 학교(Vologda Institute of Law and Economics)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 기술 경제대학(체레포베츠분교)( 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Economics (branch in Cherepovets))	현대 인문 아카데미(체레포베츠분교) (Modern Humanitarian Academy)
체레포베츠 국립대학교(Cherepovets State University)	북-서 공공서비스 아카데미(North-West Academy of Public Service)	상트페테르부르크 비즈니스 법학 대학(St.Petersburg University of Business and Law)
체레포베츠 라디오 전자공학 군 기술자 대학(Cherepovets Military Engineering University of Radio Electronics)	물 운반 대학교(Academy of Water Transport)	모스크바 비즈니스와 현대기술 대학교(Moscow University of Business and Modern Technologies)
	블로그다 기술 대학교(체레포베츠분교)(Vologda State Technical University)	

## 5. 문화

### 5.1 문화개괄



블로그다 주는 독특하고 다양한 역사적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주이다. 블로그다 주의 역사의 뿌리는 고색창연한 과거이며 다양하고 유명한 고고학적 건축물과 수공예품이 유명하다.

블로그다 주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성당인데 스파소-프리루츠 (Спасо-Прилуц), 트로이체-그레덴스크(Троице-Гледенского)이 있다. 15~17세기 블로그다의 성당들은 러시아 정치, 경제, 종교, 문화였다. 성당들은 모스크바문화와 러시아 국가적 성격을 구체화시켰다. 러시아정교회 연대기를보면 러시아성인의 2/3이 블로그다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블로그다 주에는 많은 18세기 이전의 고고학적 기념비, 이콘화, 회화작품, 조각상, 장신구, 책 등이 있다. 블로그다 주는 수공예품의 중심지로 레이스, 염색 에나멜과 황금과 은의 장신구, 자작나무로 만든 수공예품이 있다.

### 5.2 문화유적 및 예술

#### 5.2.1 건축물

블로그다 주에는 300개 정도의 공인된 건축물 있다. 소피아 성당(Софийский собор)의 엄청난 크기의 종은 블로그다의 상징이 되었다. 키릴 렐로제르스크(Кирилло-Белозерск)와 페라폰토프성당 (Ферапонтов монастыр)이 고대러시아의 독특한 건축물로 벨리키 우스투, 벨로제르스크에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소피아 성당



페라폰토프 성당



페라폰토프성당은 러시아 역사상 중요한 시기였던 15~17세기 러시아 정교회 교회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곳으로 이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수도원의 건축물은 매우 독창적이고 순수하다. 내부에는 디오니시의 벽화가 있다.

페라폰토프 수도원의 성모 마리아 탄생 성당(Cathedral of the Nativity of the Virgin)에 있는 디오니시의 벽화들은 15세기~16세기 러시아의 벽화 예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수도원 건축물도 러시아가 문화적·종교적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시기였던 15세기~17세기의 러시아정교회 수도원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순수하고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페라폰토프 수도원은 성 키릴 벨로제르스키(St. Kirill Belozerskii)의 친구이자 조력자였던 성 페라폰트(St. Ferrapont)가 1398년에 설립하였다. 수도원은 성 키릴의 제자인 성 마르티니안 벨로제르스키(St. Martinian Belozerskii) 덕분에 명성을 얻었다. 성 마르티니안은 1447년~1455년에 트로이체 세르기예프 수도원(Troitse-Sergiev Monastery)의 수도원장(대수도원장)이었다. 키릴로 벨로제르스크 수도원(Kirillo-Belozersk Monastery)과 더불어 페라폰토프 수도원은 많은 러시아 봉건귀족과 통치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부하기를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15세기에는 국가에 지도적 역할을 하였던 러시아정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수도원에 벽돌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은 1490년에 로스토프(Rostov)에서 온 장인이 성모 마리아 탄생 성당, 뒤이어 수태고지 교회(Church of the Annunciation), 금고의 방(Treasury Chamber), 그리고 부속 건물들을 세우면서부터이다. 17세기에는 문 교회(Gate Church)와 성 마르티니안 교회(Church of St. Martinian), 종루를 세웠다. 차르와 공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으로 찾아왔고, 이반 4세(Ivan IV)는 수도원에 특권과 특허장을 수여하였다. 마르티니안의 유해를 안치하고 시성식(論聖式)을 올린 뒤로 이곳은 순례지가 되었고 많은 선물과 기부가 답지하였다. 수도원은 60여 개의 부근 마을을 소유하며 벨로예 호(Lake Belaye) 주변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가 되었으나, 1798년에 종교회의를 거쳐 폐쇄되었다. 19세기에는 축소된 수도원 구역을 벽돌담으로 둘러쌌다. 1904년에 수녀들을 위한 수녀원으로 다시 사용되었으나, 1924년에 문을 닫았다. 오늘날 이곳은 1950년대에 문을 연 디오니시 프레스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975년 이후 크게 확장하고 개선하였다.

페라폰토프 수도원에는 6개의 주요 건축물이 있다. 성모 마리아 탄생 성당(1490)은 수도원 중심부로, 돔을 얹은 3개의 측랑이 있다. 열을 지은 수직 벽기둥이 날씬한 비례를 더욱 강조한다. 건물 파사드(facade) 윗부분은 줄지은 난간동자와 꽃 장식이 있는 도자기 판들로 장식되어 있다. 반면 아랫부분은 환상적인 가면들과 꽃 장식이 특징적인데, 이것은 블라디미르(Vladimir) 교회들의 하얀 석회암 조각을 연상시킨다. 내부는 2열로 된 4개의 볼록한 기둥이 가르고 있고, 원통형의 구조물이 아치형 천장을 지탱하고 있다. 내부 표면은 전체가 디오니시 무드리(Dionisii Mudrii, 현자)의 벽화들로 뒤덮여 있으며, 건물에 있는 다양한 크기의 건축 요소가 줄지어 있다. 건물 외부와 서쪽 벽 중앙, 남쪽 벽 아랫부분, 성 마르티니안 묘지 위에도 그림들이 있다. 수태고지 교회(1530~1531)와 식당은 바실리 2세(Vassilii II)가 훗날 이반 4세가 되는 후계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었다. 러시아 북부에서 최초로 꼭대기에 종탑을 세운 교회이다. 2층으로 된 금고의 방은 벽돌로 지은 비종교 건물로서, 러시아 북부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이곳은 수도원의 문서와 다른 보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였다. 17세기 러시아 교회 건축의 특징을 간직한 성 마르티니안 교회(1641)는 성모 마리아 탄생 성당의 남쪽 벽을 등지고 성 마르티니안 묘지 위쪽에 세워졌다. 형태로 보면 8면의 '천막'을 가진 단순한 정육면체, 또는 뾰족탑과 날씬한 원통형이다. 낮에는 수도원의 두 번째 설립자 무덤으로 햇빛이 위에서 들어온다. 성 페라폰트(1650) 작은 문 교회와 주현절(Epiphany) 작은 문 교회는 이중의

성스러운 문(Holy Gate) 주위에 들어섰는데, 구조가 특이하다. 뿔족탑들이 문 건물 중앙에 얹혀 있고, 교회 벽보다는 문 건물의 벽이 떠받치고 있다. 종탑(1680년대)은 식당과 성모 마리아 탄생 성당을 연결하는 건물 위에 있다. 17개의 종이 달려 있고, 뿔족탑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1638년 시계 장치가 들어 있다.<sup>60)</sup>

### 5.2.2 그림

블로그다 주에서는 역사적인 러시아 북방예술작품들을 교회와 성당 그리고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그림은 소피아성당의 프레스코화이다. 이 프레스코화는 1586~1638년에 30명의 야로슬라브로부터 온 이콘화가들이 그렸으며 유명학 계약자이자 이콘 화가인 드미트리 플레하노비치에 의해 감독되었다. 그들은 성당의 벽면의 크기에 알맞도록 프레스코화를 디자인했다. 프레스코화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17세기에 가장 유명한 주제이다.



블로그다 주에서 가장 오래된 이콘화는 13세기에 키릴 벨로제르스키가 제작한 이콘화이다. 러시아 미술의 초기 작품들은 블로그다 주 박물관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미술들은 로스토프, 모스크바, 노브고로드, 수즈달 학파와 닮아 있다. 북방 화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수련을 통해 노브고로드와 모스크바의 기술을 익혀 미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전쟁을 그린 화가 바실리 베레스차긴은 체레포베츠에서 태어났으며 러시아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드미트리레비치, 바라킨 등은 그래픽아트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다. 1970년대에 블로그다는 그래픽 아트의 중심지가 되었다.

### 5.2.3 박물관<sup>61)</sup>

블로그다 주에는 러시아의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박물관들이 많다. 그 중 대표적 박물관은 키릴 벨로제르 박물관(Кирилло-Белозе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ко-архитектурный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заповедник)이다. 이 박물관은 1924년 건축된 수도원으로 11개의 아름다운 교회를 갖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는 이콘, 교회책, 식기도구, 무기와 방어구 등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명한 박물관은 블로그다 주립 미술 갤러리(Вологодская областная картинная галерея)이다. 이 박물관은 러시아 북서지구에서 가장 좋은 박물관이며 서유럽 그림과 고대 러시아회화 18~20세기 러시아 회화작품과 19~20세기 러시아 그래픽 아트 그리고 현대 블로그다인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블로그다 주 역사 건축 예술박물관(Вологод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ко-архите

60) 문화재청 '유네스코 등재유산-세계유산-페라폰토프 수도원 유적' <http://www.cha.go.kr/>

61) 사진출처 : [http://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culture/museums/](http://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culture/museums/)

ктурный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заповедник)은 400,000여 이상의 13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러시아의 위대한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1885년 지어졌으며 볼로그다 크레믈린 중앙에 위치해 있다.

#### 5.2.4 극장<sup>62)</sup>

18세기 이후부터 볼로그다 지역에서는 연극을 볼 수 있었다. 최초의 배우는 아마추어배우로 종교적 인물을 연기 한 사람이었다. 20세기 초반에는 16개의 극장이 있었으며 현재에는 볼로그다지역에 유명한 다섯 곳의 극장이 있다. 볼로그다 사람들은 연극을 보는 것을 좋아하며 자 연극을 보러 다닌다.

볼로그다 드라마 극장(Вологодский ордена «Знак Поче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은 1849년 지어졌으며 볼로그다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중 하나이다. 19세기에 극장은 지역의 지식인들이 방문하기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고 19세기 크림전쟁 이후에는 적십자와 연합을 했다. 오늘날에도 볼로그드라마 극장은 지역인들에게 중요한 문화의 삶은 제공하는 장소이다. 많은 작품들을 상연하기 위해 극단 사람들은 많은 연습을 하고 배우들과 프로듀서는 지역에서 유명인이다.

드라마 극장



어린이 극장



어린이 극장(Театр дл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은 1976년 설립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지어진 극장이다. 이 극장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모두 유명하다. 이 극장은 보리스 그레나토프가 설립했으며 지역정서를 보존하기 위해 극장을 만들었다. 극장은 현대적인 극을 상연하며 디렉터는 체홉, 고골, 푸쉬킨등의 고전 소설작가들의 작품도 가미한다. 1980년대에 어린이 극장은 명성을 얻었고 많은 상을 탔다.

볼로그다 테레목 인형극 극장(Театр кукол «Теремок»)은 1937년에 모스크바 예술 아카데미를 졸업한 아나니에 바실리비치 (Анание Васильевич)에 의해 설립되었다. 많은 인형술사, 배우들이 힘을 합쳐 극장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들은 인형과 배경은 조각하고 바느질하고 색을 칠했다. 2002년 극장은 설립 65주년을 기념했다. 극장은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 헝가리, 불가리아 그리고 핀란드에서 상연했다.

62) 사진출처 : [http://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culture/theatres/](http://vologda-oblast.ru/en/about_the_region/culture/theatres/)

### 5.3 수공예품

수 세기 동안 볼로그다의 전통 수공예품은 능숙한 디자인으로 유명했다. 가장 유명한 수공예품은 레이스공예 있다. 중세의 볼로그다 시기에도 레이스공예는 매우 유명했다. 19세기에 볼로그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공예품을 유럽에 선보였으며 그들에게 수출했다.

#### 5.3.1 레이스 공예

볼로그다의 레이스 공예는 명성이 자자하며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초기 레이스 공예는 17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금색과 은색 실로 공예품을 만들어 교회장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귀족들에게 사용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는 레이스는 세계적으로 교역되었으며 20세기 초반부터는 볼로그다 공예는 예술과 스타일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1937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서 볼로그다 레이스는 고귀함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 5.3.2 나무 조각

세모카사 강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로부터 시작된 나무조각은 18세기부터 시작된 문화유산이다. 오래된 직공들은 작은 상자를 동물과 요정 캐릭터로 장식하거나 소작인과 소작농의 모습으로 장식한다. 수공예품은 간단하고 가공하기 쉽고 저렴한 물질을 사용한다.



#### 5.4 볼로그다 출신 유명인<sup>63)</sup>

볼로그다 주의 역사는 뛰어난 볼로그다 출신의 사람들이 모국에 번영과 영광에 기여한 바가 크다. 많은 수의 교회들이 볼로그다 주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역사가들이 볼로그다 주를 러시아 북방의 고대 이집트의 수도 테베라고 부르도록 만들었다. 러시아 동방정교회 연대기를 보면 정교회 성인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로그다 주 영토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볼로그다는 많은 작가와 시인들로 유명한 곳인데 그 중 뛰어난 러시아 시인인 콘스탄틴 바투시코프(Константи н Батюшков)와 위대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이그나지 브란차니노프(Игнатий Брянчанинов)가 있다.

바투시코프



콘스탄틴 니콜라예비치 바투시코프 (1787-1855)는 볼로그다에서 태어난 러시아의 시인, 문학 비평가, 번역가로, '아르자마스 문학 모임'의 회원이자 '자유 문학 애호가 사회'의 명예 회원이었다. 그는 고대 문학과 이탈리아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자아희생, 깨끗한 양심을 중시한 철학을 바탕으로 많은 시를 썼다. 그의 초기 작품은 "러시아의 파르니"와 "사랑과 즐거움을 노래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쟁과 사회 변화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담은 후속 작품들도 남겼다. 1807년과 1812년의 전투에 참여하고, 그 후 정신적 위기를 겪으며 문학과 군 복무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작품을 완전히 꽃피우지 못했다. 그는 1822년부터 정신병에 시달리며, 1833년 볼로그다로 이주하여 22년을 보내다 1855년에 사망했다. 그의 문학은 푸시킨, 바라틴스키, 튜체프, 아흐마토바, 만델슈탐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적 인간과 세계의 이미지를 그린 새로운 유형의 서정시를 창조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sup>64)</sup>

코바코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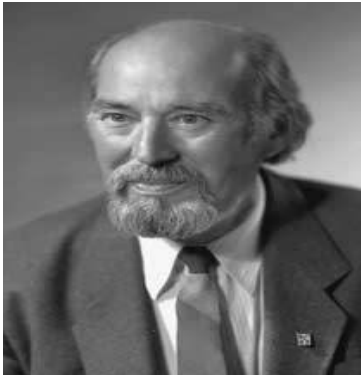


많은 기간 동안 정치망명가들도 인해 볼로그다 지역의 문학은 꽃을 피웠다. 볼로그다 지역에서 태어난 화가들은 러시아 미술사와 러시아 그래픽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 작가로는 코르바코프 (В. Корбаков), 투툰잔 (Д. Тутунджан), 스트라호프 (В. Страхов), 소콜로프 (Е. Соколов), 판텔레예프 (А. Пантелеев)가 있다.

63) 볼로그다 주 공식 홈페이지 <http://vologda-oblast.ru/ru/>(검색일:2019.05.04.)

64) <https://cultinfo.ru/literature/early-writers-vologda/batyushkov-konstantin.php> (검색일 2025.03.22.)

알렉스키 시무노브



블로그다 국민 배우

1953-1957년 블로그다 드라마 극장에서 연기했으며

1968년 소련 영예로운 연기자 수여받았다.

1995년 블로그다의 명예시민 훈장을 받았다.

바체슬라프 미하일로비치 몰로토프(Вячеслав Михайлович Молотов)



1890~1986년 소비에트 연방의 정치가, 외교관

1930~1941년 수상을 역임하였고, 1939년~1956년 외상을 지냈다. 그가 외상이었을 때 독소 불가치 조약을 체결했다.

특히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이오시프 스탈린의 오른팔로서 소련의 외교정책을 주도하였다. 스탈린 사망 이후에는 스탈린 격하 운동을 추진했던 니키타 흐루쇼프와 대립하였다가 좌천당하고, 후에 당적을 박탈당했다. 1984년 당적을 회복하였다.

## 6 대한관계

### 한국-블로그다 경제협력

블로그다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1991년 충청북도가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제이해를 증진하고 상호방문 등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sup>65)</sup> 하지만 이후 양 도시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호 방문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2007년 9월 10일에는 블로그다 비즈니스 전문대학교에 한국문화원(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을 개설하였다.<sup>66)</sup> 이곳에서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화, 문학 등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분야는 천연자원 개발, 철강 수입, 자동차 수출 등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동해탄화수소'가 2006년 블로그다 주의 남그라조베츠 유전의 탐사 개발권을 따냈으며 동 업체 대표 권광진은 현지 개발인력과 함께 '페트롤인베스트'라는 법인을 설립 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sup>67)</sup> 또한, 현대자동차는 체레포베츠시에 위치한 철강회사 세베르스탈과 상트 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에 장기간에 걸쳐 압연강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2012.5월)했다. 아울러 2013년에는 '세베르니' 그룹과 브랜드 딜러 네트워크의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체레포베츠시에 자동차종합서비스센터를 개설했다. 새롭게 문을 연 서비스 센터는 한번에 12대의 차량을 전시할 수 있는 624 평방 미터의 쇼룸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 종합적 서비스 차원에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포함해, 자동차 보험, 자동차 구매 대출 서비스, 임대, 보상 판매 등의 서비스의 전체 범위를 제공하고 있다.<sup>68)</sup>

2013년에는 '세르베니' 그룹과 브랜드 딜러 네트워크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체레포베츠시에 자동차종합 서비스센터를 개설했고, 한국과 국제적으로 산업 기계와 첨단 부품을 제조해 판매한다. 1997년 트랙터 사업에 뛰어들어 이후 LS네트웍스는 꾸준히 성장해 트랙터 판매량 면에서 국내 1위로 올라섰다.<sup>69)</sup>

2018년 3월 한국-블로그다 문화 축제 교류: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가 이진현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단이 블로그다 지역에 도착했다. 방문의 주 목적은 블로그다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것이다. 음악과 춤, 한국영화 시연회, 사진전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사회경제적 잠재력 제시, 블로그다 지역과 대한민국 사이의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sup>70)</sup>

65) 연합뉴스 1991.8.1자 기사 '충북도 일본 소련 등 자매결연 추진', www.daum.net에서 검색

66)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홈페이지 '관할지역 개관-블로그다주 개관', [http://rus-stpetersburg.mofa.go.kr/korean/eu/rus-stpetersburg/policy/overview/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13648%26seqno=944179%26tableName=TYPE\\_LEGATION](http://rus-stpetersburg.mofa.go.kr/korean/eu/rus-stpetersburg/policy/overview/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13648%26seqno=944179%26tableName=TYPE_LEGATION)

67) 한국경제 2008.5.20자 기사 [자원패권시대] 제1부 (7) '검은 황금' 틈새캐는 한국 중소기업, <http://www.kinds.or.kr/>에서 검색

68) 러시아의 소리 2013.11.28자 기사 '현대차 CIS, 체레포베츠 시내에 자동차종합서비스센터 개설' [http://kr.sputniknews.com/korean.ruvr.ru/news/2013\\_11\\_28/253344883/](http://kr.sputniknews.com/korean.ruvr.ru/news/2013_11_28/253344883/)

69) Vologda oblast official website All news. "Representatives of South Korean companies LS Mtron and LS Networks paid an official visit to Vologda Region on March 21st.", <http://vologda-oblast.ru/ru/>(검색일:2019.05.04.)

70) Vologda oblast official website All news. "Chairman of Vologda Oblast Government Anton

아직 볼로그다와의 한국과의 관계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정치적 교류가 총북과의 자매결연 이외 진전사항이 없으며 문화, 경제적 협력도 미미한 편이다. 하지만 볼로그다가 가지고 있는 철강산업의 기반과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까지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리적 장점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철강분야에 있어 우리의 발전된 기술력과 볼로그다의 생산능력을 결합되면 유럽으로의 시장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철강 수출 강국 볼로그다와 제조업 강국 한국이 교류를 확대시킨다면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화 측면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문화교류에 대한 볼로그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일시적 행사나 문화원 개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볼로그다 지역사회에 한국의 저변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문화전파는 그야말로 소프트 외교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관련 언론기사]

1) 忠北道, 일본 소련등 자매결연 추진 - 2025년 현재 자매결연 체결 X71)

연합뉴스 | 입력 1991.08.01 11:45

(청주(淸州)=연합(聯合)) 총북(忠北)道는 1일 일본(日本) 山梨縣 및 소련 러시아공화국내 볼로그다주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키로 했다. 道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제이해를 증진하고 상호방문등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89년부터 일본(日本) 山梨縣과 자매결연을 추진, 지난 달 山梨縣 의원 및 현청 공무원등이 총북(忠北)을 방문,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 道는 이에따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총북(忠北)도 및 도의회 실무단 6명이 일본을 방문,자매결연 문제를 협의한 뒤 연내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를 실시키로 했다. 道는 또 모스크바 북동쪽 5백km에 위치한 볼로그다주(인구 1백50만명)에서도 지난해 총북(忠北)도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서신을 보내오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계 소련 대표단을 공식 초청키로 하고 최근 대표단의 방문희망일자과 기간,일정 및 총북(忠北) 대표단의 방소수락등 사전조정에 필요한 협의전문을 보냈다.道는 소련 볼로그다주와 자매결연 추진 실무진 상호방문에서 구체적 결연계획이 나오는대로 자매결연을 해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총북(忠北)道는 지난 86년 미국 아이다주와 자매결연을 한뒤 5년째 교류를 해오고 있다.(끝)

2) 러시아共 인민대표회의 일행 총북(忠北) 방문

연합뉴스 | 입력 1991.09.30 09:26

(청주(淸州)=연합(聯合)) 소련 러시아공화국 볼로그다주 인민대표회의 알렉세이 티토프 집행위원장등 일행 6명이 총북(忠北)도와의 자매결연 협의차 30일 총북(忠北)道를 방문했다. 지난 27일 서울에 도착한 티토프 위원장 일행은 28,29일 속리산(俗離山),청주(淸州)박물관등을 둘러본뒤 30일 상오 총북(忠北)道로 李同浩 지사를 예방,자매결연에 따른 협의와 문화교류방안등을 논의했으며 하오에는 청주 상공회의소와 청주 공업단지를 둘러봤다. 이들은 10월1,2일 경주(慶州)와 포항(浦項)을 시찰한뒤 4일 출국할 예정이다.

---

Koltsov met wi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t Petersburg Lee Jin Hyun.”,http://vologda-oblast.ru/ru/(검색일:2019.05.04.)

7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Region.do?relationType=101&menuNo=200161> 검색일 25.04.15

### 3) [자원패권시대] 제1부 (7) '검은 황금' 틈새개는 한국 中企

한국경제 2008.5.20

에너지개발붐을 타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앞다퉀 '검은 황금'을 찾아 나서고 있다. 방치된 작은 유전들을 사들이거나, 현지 인맥을 활용해 내전지역까지 파고드는 공격적 진출로 현지에서도 관심거리다. 최근 2~3년 새 부쩍 늘어난 중소기업들의 러시아 자원개발 러시에 대해 "에너지 자주개발에 기여한다"는 긍정론과 "경제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엇갈리고 있다. 동해탄화수소는 2006년 모스크바 북쪽 볼로그다 주의 남그랴조베츠 유전의 탐사·개발권을 따냈다. 권광진동해탄화수소 대표는 현지 개발인력과 함께 '페트롤인베스트'라는 법인을 설립, 탐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이르면 다음 달까지 탐사보고서가 나오면 올해 안에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매장량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11억6800만 배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쿠에너지 대표 시절이던 2004년 BP, 중국 CNPC 등 거대기업과 경합 끝에 '사할린-6'(페트로사흐 유전) 사업권을 따낸 주인공. 하지만 자금조달 과정에서 유전게이트로 비화돼 사업권을 러시아 민간석유기업 우랄스에너지로 넘겨야 했다.

또 다른 유전게이트의 주인공 전대월 KCO에너지 대표는 사할린에서 명예회복을 베풀고 있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러시아 석유업체인 톱가스네프티를 인수(지분 24%), 사할린 중동부의 유즈노다긴스키 유전(추정 매장량 7600만배럴)을 따냈고 2006년 낙찰받은 사할린 중서부 해안 라마논스키 유전도 탐사 중이다. 예당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예당에너지는 지난해 7월 러시아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 생산유전인 빈카 유전(지분 70%)을 2520만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해 화제가 됐다. 예당에너지는 1단계 탐사 시추를 통해 지금까지 5600만배럴 이상의 매장량을 확보하고 실험생산분 5000배럴을 지난해 말 지식경제부에 처음 신고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러시아 유전개발에 나서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소규모 유전들이 적지 않기 때문. 전대월 대표는 "구 소련 시절 생산을 중단한 육상유전들이 일년에 몇 차례씩 지방정부나 보유 기업에 의해 시장에 나온다"며 "싸게 사들인 뒤 탐사활동을 통해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석유공사, SK에너지 등 7대 에너지기업을 제외한 중견·중소기업이 전체 자주개발 물량의 25%를 차지한다"며 "이들의 생산유전 인수방식은 양적으로는 미미해도 자주개발 기회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하지만 본격 생산까지는 이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해상유전보다 매장량이 적은 육상유전을 주로 손대는데다 경제성도 실제로 계산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단순 매장량 추정치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원유의 질과 주변 인프라 수준에 따라 생산·판매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도 엔터테인먼트, IT 등 비에너지 기업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아 에너지 기술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도 또 다른 한계다.

#### 4) K-FEST 2020: 한국의 리듬을 느껴보세요<sup>72)</sup>

2020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세 번째 연례 한국 관광 및 문화 페스티벌 "K-FEST 2020: 한국의 리듬을 느껴보세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페스티벌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토크쇼,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Quiz on Korea" 퀴즈 대회, K-pop 아티스트 공연, K-Food, K-Beauty, K-Medi(의료 서비스) 강연, 한국 기업 온라인 투어, 그림 대회, 자선 행사 등 열 가지가 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 5) 한국 총영사관 대표단의 블로그다 방문<sup>73)</sup>

2021년 10월,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박주영 부총영사 일행이 블로그다주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지역의 산업 및 경제적 잠재력을 파악하고, 금속, 화학, 임업, 농업, 기계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지역 행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혜택과 산업 단지, 경제 특구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을 소개하였으며, 한국 측은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6) 철갑상어 알 수출 확대<sup>74)</sup>

2023년, 블로그다주 카두이스키 지역의 ООО "Диана"(유한책임회사 디아나)에서 생산한 철갑상어 알 2055개가 한국과 카타르로 항공 운송되었다. 전체 수출량은 총 241kg으로, 이는 2022년의 68kg보다 3.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수출 대상국도 기존의 4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에는 한국, 베트남, 오만, 세르비아, 터키, 카타르 등이 포함된다.

#### 6) 목재 연료 펠릿의 한국 수출<sup>75)</sup>

2023년 11월부터 총 75톤의 목재 연료 펠릿이 블로그다 지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었다. 2023년 동안 한국으로 520톤 이상의 펠릿이 수출되었으며, 북한, 이스라엘, 터키에도 수출이 이루어졌다. 이번 수출은 지역 수출 지리의 확장을 반영하며, 국제 수요 증가를 보여준다.

---

72) Фестиваль «K-FEST 2020» приглашает вологжан погрузиться в культуру и традиции Кореи <https://cultinfo.ru/news/index.php?CODE=festival-k-fest-2020-priglashaet-ologzhan-pogruzi> 검색일 25.04.14

73) Безформата. Вологодская область намерена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Южной Кореей <https://vologda.bezformata.com/listnews/sotrudnichestvo-s-yuzhnoy-koreey/98568918/> 검색일 25.04.14

74) Abnews. Предприятия СЗФО в 3 раза увеличили экспорт черной икры в Корею и Катар. <https://abnews.ru/szfo/news/vologda/2024/1/1/predpriyatiya-szfo-v-3-raza-uvelichili-eksport-chnoy-ikry-v-koreyu-i-katar> 검색일 04.15

75) Вести Вологда. 75 тонн топливных брикетов отправилось в Корею из Вологодской области. <https://xn-35-dlcmp7ch.xn-p1ai/news/2023/11/28/75-tonn-toplivnyh-briketov-otpravilos-v-koreyu-iz-vologodskoy-oblasti> 검색일 25.04.15

## 7) 한국 및 일본 문화 강의<sup>76)</sup>

블로그다 제21 시립 도서관은 4월 19일, 독자들을 위해 두 가지 흥미로운 강연을 준비하였다. 먼저, 일본 문화 강연에서는 러시아어와 문학 교사이자 러시아 '지식' 협회의 강연자인 알렉산드르 밀릭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 만화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소개했다. 강연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만화 산업의 주요 발전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지는 한국 문화 강연에서는 제21 시립 도서관의 관장 안나 스피리도노바가 한국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음악, 영화가 청소년들의 취향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

76) Лекции о японских комиксах и культуре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йдут в Вологде.  
<https://cultinfo.ru/news/2024/4/lektcii-o-yaponskikh-komiksakh-i-kulture-yuzhnoy> 검색일 25.04.15

## 참고문헌

### 문헌 자료

북서연방지구 지방연구시지리2 (서울: 경희대학교 지역연구팀)

### 인터넷 자료

블로그다 주 공식 홈페이지 <http://vologda-oblast.ru/ru/>

블로그다시 공식 홈페이지 <http://vologda-portal.ru/>

체레포베츠시 공식 홈페이지 <http://www.cherinfo.ru/>

러시아통계청 [www.gks.ru](http://www.gks.ru)

튜티엠포 기상 안내 홈페이지 <http://www.tutiempo.net/>

일렉트로지오그래피 홈페이지 <http://www.electoralgeography.com>

대외정책연구소 [www.kiep.go.k](http://www.kiep.go.k)

러시아국제 경제 통계 <http://www.statinfo.biz/>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www.mediagaon.or.kr/>

월드뱅크 [www.worldbank.org](http://www.worldbank.org)

통계 분석 홈페이지 [www.tradingeconomics.com](http://www.tradingeconomics.com)

국내언론기사 검색, <http://www.kinds.or.kr/>

러시아언론기사 검색, <http://russiafocus.co.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러시아연방 투자분석 지도 <https://www.investinregions.ru/en/map/>

블로그다주 공식 의회 홈페이지 <http://www.duma-vologda.ru/deputy/>